

발 간 등 록 번 호

11-1543000-002710-01

| 2019. 02.

여성농업인 육성정책 추진체계 개선방안 연구

- 여성농업인 전담부서 설치를 중심으로

강 혜 정 전남대 교수
김 윤 형 전남대 부교수
박 서 윤 전남대 석사과정

제 출 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여성농업인 육성정책 추진체계 개선방안 연구 - 여성농업인 전담부서 설치를 중심으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9년 2월

연구기관: 전 남 대 학 교

연구책임자: 강 혜 정 (교 수)

연구참여자: 김 윤 형 (부 교 수)

연구참여자: 박 서 윤 (석 사 과 정)

차 례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내용 및 방법 4
3. 국내외 연구동향 7

제2장 여성농업인의 실태 및 가치

1. 여성농업인의 활동실태와 애로사항 11
2. 여성농업인의 노동가치 21
3. 여성농업인 역할의 중요성 23

제3장 여성농업인 전담부서 설치방안

1. 여성농업인 전담부서 설치의 필요성 31
2. 여성농업인 관련 업무 현황 39
3. 여성농업인 전담부서 설치안 49

제4장 여성농업인 전담부서 목표 및 과제

1. 여성농업인 전담부서의 목표 54
2. 여성농업인 전담부서의 과제 55
3. 여성농업인 신규과제의 추진방안 65

제5장 일본 여성농업인 정책

1. 일본 여성농업인 전담부서 90
2. 일본 여성농업인 정책 사례 92
3. 시사점 93

부록 1: 여성농업인 농업노동 가치 추정모형	97
참고문헌	101

표 차례

제2장

표 2-1. 소멸위험지수	28
표 2-2. 연도별 농가인구 소멸위험지수 계측 결과	29

제3장

표 3-1. 여성농업인과 관련된 정부 국정과제	32
표 3-2. 정부부처 및 기관 성평등 추진체계 설립 현황	33
표 3-3. 여성 관련 센터의 지역별 분포	34
표 3-4. 여성농업인과 남성농업인 비교 통계	36
표 3-5. 농림축산식품부 여성농업인 담당부서 연혁	40
표 3-6. 여성가족부의 주요 사업	44
표 3-7. 보건복지부의 여성농업인 관련 사업	46
표 3-8. 고용노동부의 여성고용 관련 사업	47
표 3-9. 전담부서의 적정 인원수 추정	51
표 3-10.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인원 및 담당업무	51
표 3-11. 여성농업인정책과(가칭)의 주요 업무 및 인력 규모	53

제4장

표 4-1. 지자체의 여성농업인 관련 연구기관 현황	70
표 4-2. 추진방안 - 제 1안, 제 2안	70

제5장

표 5-1. 일본의 여성농업인 정책	91
표 5-2. 「농업 여자프로젝트」 주요 성과	92

그림 차례

제1장

그림 1-1. 연구 흐름도	7
----------------------	---

제2장

그림 2-1. 여성농업인 유형화	12
그림 2-2. 여성농업인 활동영역과 지위	13
그림 2-3. 여성농업인의 활동 제약요인	20
그림 2-4. 여성농업인과 기혼취업여성의 노동시간 비교	21
그림 2-5. 농업·농촌환경변화에 따른 여성농업인의 역할	25
그림 2-6. 연령별 성별 농가인구구조 변화, 2000~2015년	27

제3장

그림 3-1. 여성농업인 전담부서 조직도(안)	49
---------------------------------	----

요 약

현재 농업정책은 대부분 농가 중심 또는 경영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어, 여성 농업인이 처한 현실, 특히 영농과 가정의 양립 관련 정책 등이 미흡하여 전문 여성농업인의 육성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는 여성 농업인 관련 정책들을 총괄하고 책임지는 전담 부서를 설치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여성농업인 정책 추진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여성농업인 전담부서는 여성농업인 정책업무를 총괄하는 과장과 관련 세부 사업운영을 위한 4가지 분야, 즉 기획, 양성평등, 여성인력, 여성복지 분야로 구성된다. 기획 분야의 주 업무는 여성농업인육성계획 수립 및 평가, 신규과제 발굴 및 연구지원 등의 기획업무, 타처 및 타부서와 관련 업무 협력 등을 관장 하며, 양성평등 분야의 주 업무는 농업현장 성평등 교육 관련 업무, 성인지 통계 생성 및 분석업무, 농업정책 성별영향평가 관리 등이다. 여성인력 분야의 주 업무는 후계여성농업인 육성업무, 여성농업인 경영역량 강화사업, 여성농업인 단체 협력사업,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인력화사업 등이며, 여성복지 분야의 주 업무는 생애주기별 여성 복지사업, 고령여성농업인 생산적 복지사업, 다문화 복지 사업, 여성농업인 문화여건 개선 사업 등을 담당한다.

신설 여성농업인 전담부서는 기존 여성농업인 관련 정책사업 이외에 신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및 추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신규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영농현장 맞춤형 성희롱·성폭력 상담 및 교육 전담인력 양성, 여성농업인센터 중앙지원단 설치, 여성농업인 패널 조사 및 성인지 통계 생성, 여성농업인 연구센터 설치·운영, 여성농업인 네트워크 및 생활문화 지원, 여성농업인 코디네이터 육성 및 지원, 여성농업인 콜센터 운영, 여성농업인 공감·소통채널 구축·운영, 여성농업인의 대표성 제고, 여성농업인 생산 우수농산물 마케팅 지원, 고령여성농업인의 생산적 복지 실현 농업법인 지원, 여성농업인 적합 자격증 개설, 현장밀착형 노동여건개선사업 등이다.

제 1 장

서 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1. 연구 필요성

- 2018년 농업 주종사자에서 여성농업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52.7%(약 771천명)로 농업 인력의 절반이상이 여성농업인임. 농가인구의 지속적 감소와 농업 인력의 고령화로 농업노동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농업현실에서, 여성농업인은 농업의 중요한 성장 동력으로 부각되고 있음.
- 여성농업인은 농가경제 내에서는 영농과 농외소득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농가소득 창출에 기여하는 경제주체이며, 국가경제 전체로 볼 때는 농업에 종사하는 직업인으로서 국민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있음. 더 나아가 농촌 마을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역할 등으로 그 활동 범위가 넓어지고 있음.
- 과거 여성농업인은 농가주부, 농업보조자로 간주되어 그 역할이 한정적이었으나 최근 들어 중장년층 여성농업인을 중심으로 역할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특히 농업경영에서 여성농업인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으며, 농산물 가공,

팜 스테이, 농촌관광 등 농업의 6차산업에서 여성농업인 CEO가 등장하고 있음. 마을노인 돌봄, 농촌보육교사, 학교급식, 농촌여성 결혼이민자의 후견인 등 농촌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여성농업인의 역할과 중요성도 더욱 증대되고 있음.

- 농업·농촌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여성농업인의 역할은 증대되고 있으나 그동안 그 역할에 대한 가치와 중요성은 과소평가되어 왔으며, 남성 중심의 문화와 제도적 틀 안에는 여성농업인의 경제 및 사회 활동을 가로막는 제약 요인들이 여전히 산재되어 있음. 이로 인해서 여성농업인은 역할에 상응하는 지위를 보장받지 못하고 농업의 주체인력으로 발전하는데 한계에 부딪치고 있음. 중장년의 여성농업인이 경제활동 및 지역사회 활동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은 법적 지위 미약, 농사일과 가사의 이중 노동 부담, 영농 기술 및 경영 능력 부족 문제, 리더십 부족 등으로 조사된 바 있음(강혜정 외, 2007).
- 농가인구 고령화와 식품소비 트렌드 변화 등의 농업·농촌 여건 변화에 따라 향후 여성농업인의 활동영역은 더 넓어지고, 그 역할 비중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농업의 핵심 인력으로 부상한 여성농업인의 경영 능력과 활동성과에 따라 향후 농업 경쟁력과 농촌 발전은 크게 좌우될 것임. 따라서 농업인력 육성차원뿐만 아니라 우리 농업·농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도 체계적인 여성농업인 육성 정책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현재 농업정책은 대부분 농가 중심 또는 경영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어, 여성농업인이 처한 현실, 특히 영농과 가정의 양립 관련 정책 등이 미흡하여 전문 여성농업인의 육성에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여성농업인이 농업·농촌에서 요구하는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노동여건 개선 등 성평등 의식에 기반한 농업정책의 추진이 필요함.

- 이와 관련하여,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여성농업인 정책 수립과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정책 실행을 위해서는 관련 전담 부서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에서 여성농업인 업무를 맡고는 있지만 농촌복지 업무 등을 함께 추진하고 있어 사실상 여성농업인 전담 부서가 없는 실정임. 여성농업인 전담 부서 부재로 여성농업인 인력육성과 관련된 독립된 예산 확보가 어려우며, 여성농업인 정책의 종합적 분석이나 새로운 사업 발굴 및 추진에도 한계가 나타나고 있음.
 - 그동안 국내 여성농업계에서 끊임없이 여성농업인 전담부서 설치를 요구해 왔음. 지난 1998년 김대중 정부 당시 농림부 내에 여성정책 전담 부서인 ‘여성정책담당관실’이 만들어진 이후, 2004년 8월부터 농업구조정책국 여성정책과가 여성농업인 정책 전담부서로서 역할을 수행하였음. 그러나 2008년 2월 농촌정책국 ‘농촌사회여성팀’으로 통합되었고, 2009년 10월 농촌사회과 농촌여성복지팀으로, 그리고 2013년 9월부터 현재로 이어지는 농촌복지여성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여성농업인 전담부서로서의 기능 및 역할은 축소 또는 약화되어 여성농업인 관련 정책도 함께 약화되었다는 것이 여성농업계의 주장임.
- 따라서, 여러 부서에 나누어져 있는 여성농업인 관련 정책들을 총괄하고 책임지는 전담 부서를 설치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여성농업인 정책 추진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임. 아울러 농식품부 내 여성농업인 전담 부서의 설치에 지자체의 관할 부서 신설의 유인책으로 작용할 것이며,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유기적인 정책 추진으로 현장에서 여성농업인 정책 체감도는 증가할 것임.
- 여성농업인 전담 부서 설치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여성농업인 관련 업무의 개편뿐만 아니라 신규 업무를 포함한 전담 부서의 업무

방향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음. 특히 농업·농촌 환경 변화에 따른 여성농업인의 직업적 지위보장, 경영능력 향상, 노동환경개선, 생산적 복지 강화, 신규 여성농업인 육성 등의 새로운 정책수요에 근거한 정책 발굴 및 추진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또한 여성농업인의 현장밀착형 정책 발굴 및 추진을 위해서는 여성농업인, 여성농업인단체, 그리고 관련 전문가 등의 현장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정책추진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1.2. 연구 목적

- 현재의 여성농업인 관련 업무 추진체계를 평가하고, 현장 수요조사에 근거한 신규 업무를 제안하여, 여성농업인 육성정책 추진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세부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음.
 - 여성농업인 관련 업무 분석을 통한 적정 인력 규모 산출
 - 여성농업인 관련 신규 업무 발굴 및 도입 가능성 검토
 - 일본 여성인 정책사례 연구 및 국내 도입 가능성 검토
 - 여성농업인 육성정책 추진체계 개선방안 제시

2. 연구 내용 및 방법

2.1. 연구 내용

□ 여성농업인 관련 업무 및 추진체계 평가

- 기관별 여성농업인 관련 업무 현황 분석
 - 농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의 여성농업인 관련 업무
 - 농식품부 내 타부서, 농업기관의 여성농업인 관련 업무

○ 여성농업인 관련 업무 추진 체계 평가

- 여성농업인 정책 추진 체계 검토 및 평가
-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한 적정 인력 규모 산출

□ 여성농업인 관련 신규 업무 발굴 및 도입 가능성 검토

- 관련 정책 및 타부처 여성 관련 업무 현황 분석을 통한 신규 업무 제안
 - 양성평등, 저출산·고령화, 일·가정 양립 등 관련 정책 종합 검토
 - 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등 타 부처 여성 관련 업무 분석
- 지자체 이양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방안 검토를 통한 신규 업무 제안
 - 여성농업인센터 등 지자체 이양사업 분석 및 평가
- 여성농업인 수요조사에 근거한 신규 업무 제안
 - 여성농업인 및 여성농업인단체 간담회 등을 통한 수요조사
 -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등 관련 통계에 근거한 신규 업무
-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에 근거한 신규 업무 제안
 - 여성농업인 전담부서 설치 추진단 회의(TF) 결과 검토
 - 여성농업인 전문가 의견조사

□ 일본의 여성농업인 정책 사례 조사 및 시사점

- 일본의 여성농업인 정책 추진 체계 조사
- 일본의 여성농업인 정책 사례 조사
- 일본 관련 정책의 국내 도입 가능성 검토 및 시사점

2.2. 연구 방법

선행연구 및 문헌 조사

- 여성농업인 관련 선행연구 및 통계자료 검토
- 문헌조사를 통한 여성농업인 관련 현행 정책 및 신규 업무 검토

여성농업인 및 전문가 간담회 개최

- 여성농업인 및 여성농업인단체 간담회 개최
-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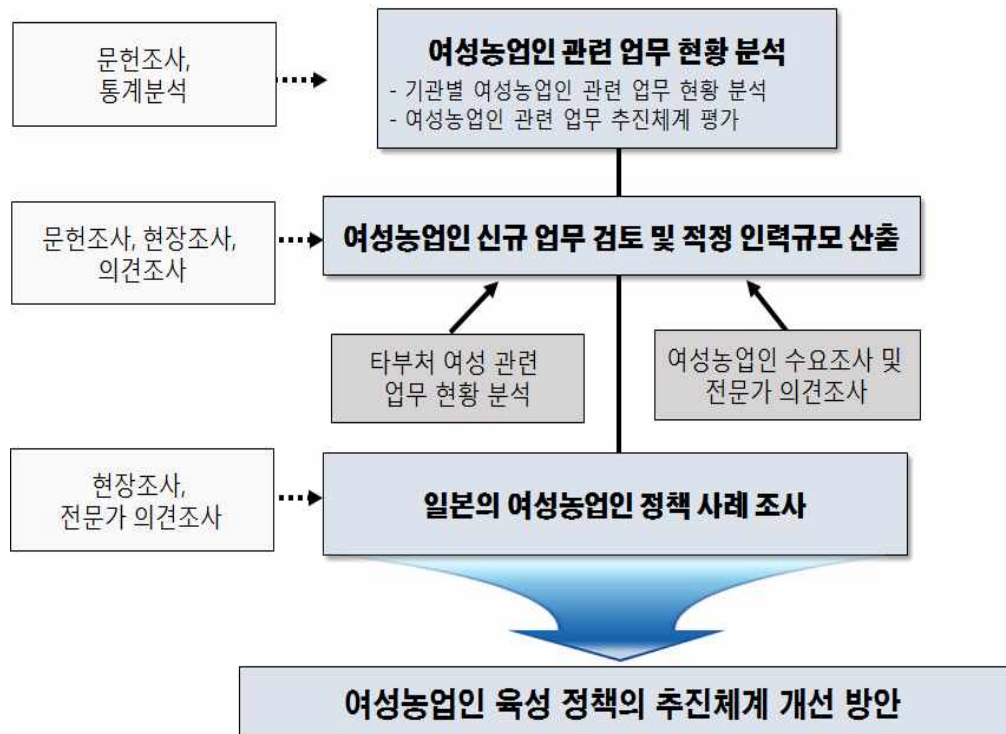
여성농업인 전담부서 설치 추진단(TF) 운영

- TF 회의 개최를 통한 의견 수렴

해외출장

- 일본 농림수산성, 여성농업인단체 등 방문조사
- 일본 여성농업인 면담조사

그림 1-1. 연구 흐름도



3. 국내외 연구동향

- 1990년대 중반 이전까지만 해도 여성농업인에 관한 연구는 여성의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 관계, 열악한 농촌의 여성복지 등의 문제를 사회갈등론적 입장과 여성해방론적 입장에서 접근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음. 그러나 1998년 3월 농림부에 여성정책담당관실의 설치와 여성농업 인력을 육성하고자 하는 새로운 정책 수요에 의해 1990년대 중반 이후 여성농업인의 전문 인력화 방안에 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

- 정기환(1997)은 농가 여성의 노동력 구조와 경제활동 실태 및 농가 여성의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제약 등을 조사·분석하여 여성농업인의 전문 경영인 육성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한 바 있음. 여성농업인의 노동생산성과 경영능력 향상을 위해 여성농업인 농작업 분야에 적합한 농기계 개발 및 보급, 여성농업인을 위한 별도의 전문 교육 과정 설치 운영, 출산, 육아 등의 현실을 반영한 적합한 교육 방식의 개발 등을 제안하였음. 또한 여성농업인에게 교육 참여 동기를 유발하기 위해 교육 과정을 이수한 여성농업인에게 적절한 절차를 거쳐 전문가 자격 인증제를 실시할 것을 제시하였음. 더 나아가 영농기술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문화, 교양, 취업교육의 확충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음.
- 김영옥·김이선(1999)은 전문여성농업인 육성정책으로 여성농업인 생산성 향상 전략수립, 후계인력육성제도 개편, 교육의 전문성 제고, 농기계 개발 및 농기계 교육 개편, 작목반 및 영농조합의 여성참여 확대, 여성인적 자원 개발 등을 제안한 바 있음.
- 이호철 외(2002)은 대구근교 지역 여성농업인의 설문조사를 통해 여성농업인 교육현황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 여성농업인의 교육은 기관 간 중복적으로 실시되는 문제가 있고, 기관의 특성에 따라 영농교육, 일반교양, 자녀교육, 건강분야 등에 치우쳐 있는 점을 지적하였음.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는 농업기술뿐만 아니라 지도력, 경영능력, 정보 등에 대한 교육 훈련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한 적절한 교육 목표 설정과 교과 및 교재 개발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음.
- 김경미 외(2004, 2005)는 영농활동에서 여성농업인의 역할 유형을 독립경영주, 준경영인, 협업/공동경영주, 농업보조자, 임금근로자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 영농의사결정 참여 수준과 영농의사결정 및 지역사회활동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설문조사하여 분석하였음. 조사대상자는 5작목(딸기, 오이, 장미, 사과, 느타리버섯)으로 각 작목당 30명씩 총 150명을 설문조사하였음.

- 허미영·박민선(2004)은 여성농업인의 경영참여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성과참여, 재산참여, 의사결정참여(전략적, 관리적, 일상적 의사결정), 경영대표권의 4가지 지표를 설정하였고, 이러한 지표들을 기준으로 5개 작목 150농가의 부부 300명을 대상으로 여성농업인의 경영참여 실태를 파악하고, 경영참여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하였음. 전문 여성농업 경영인의 육성을 위해 부부 농업법인화 또는 일본의 가족경영협정과 같은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음.
 - 박민선(2006)은 여성농업인의 농업경영능력과 리더십 배양을 위해 가족경영협약 워크북 및 매뉴얼 개발을 제안하였고, 가족경영협약 체결농가의 이행실태와 효과를 분석하였음.
 - 강혜정·마상진(2007)은 여성농업인의 활동 유형별 실태와 가치 평가를 통해서 여성농업인이 수행하는 역할의 경제적 중요성을 밝히는 한편, 경제 및 사회활동 수행에서 부딪치는 제약요인을 분석하여 여성농업인이 경제 및 사회활동 주체로서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책 과제를 도출하였음.
 - 강혜정(2013)은 2008년 여성농업인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여성농업인의 농업경영 참여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여성농업인의 경영 참여 촉진 방안을 제시하였음.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8조 (여성농어업인관련 실태의 조사 등)에 근거하여 2003년부터 매5년마다 여성농업인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관련 보고서로 김영옥·김이선(2003), 강혜정(2008), 정은미 외.(2014) 등이 있음. 주요 조사항목은 가구현황, 여성농업인의 영농, 농외소득, 지역사회활동 실태, 정보화 및 의식, 복지실태, 정책수요 등이며, 이 실태조사를 통하여 여성농업인의 활동 실태 및 정책 수요를 파악할 수 있음.
- 2000년대 들어 농촌에서 국제결혼을 통한 다문화가정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여성결혼이민자의 농업인력화 방안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었음.

강혜정(2008)은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실태조사를 통해 다문화 후계세대 실태를 파악하고 장래농가인구 및 다문화 후계세대 인구 전망을 통해 향후 농업인력 구조 변화를 전망하여, 농촌 다문화 후계세대의 농업·농촌 인적 자원화 및 맞춤형 육성 정책을 제안하였음. 강혜정·이규용(2012)은 여성결혼이민자의 노동공급 결정요인 분석을 근거로 여성결혼이민자의 농업인력 육성 방안의 기초자료를 제공하였음.

제 2 장

여성농업인의 실태 및 가치

1. 여성농업인의 활동실태와 애로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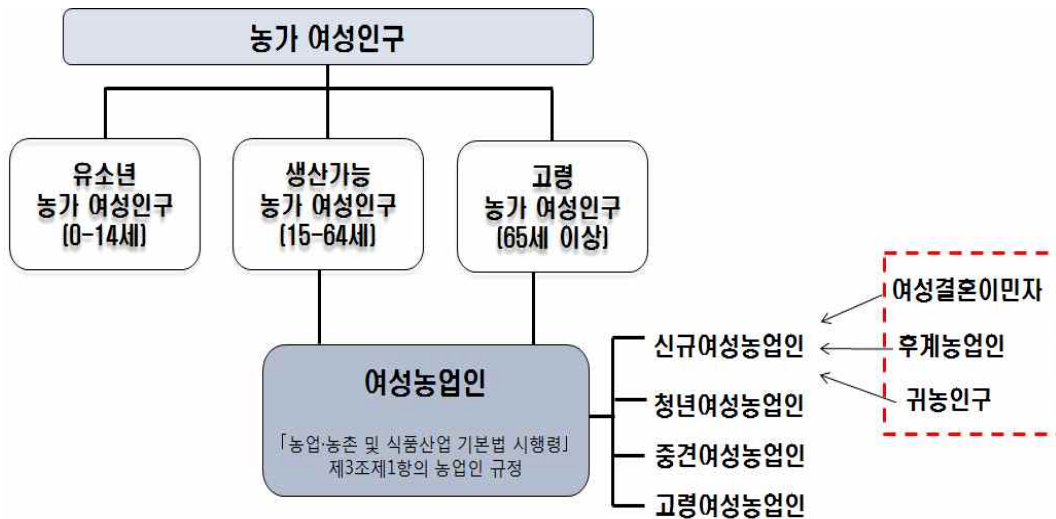
1.1. 여성농업인 유형화 및 활동영역

- 농가 여성인구는 연령대에 따라 크게 유소년 여성인구(0~14세), 생산가능 여성인구(15~64세), 고령 여성인구(65세 이상)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이 중 여성농업인은 생산가능 여성인구와 고령 여성인구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농업인 규정에 해당되는 자로 규정할 수 있음¹.

¹ 농업인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②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③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④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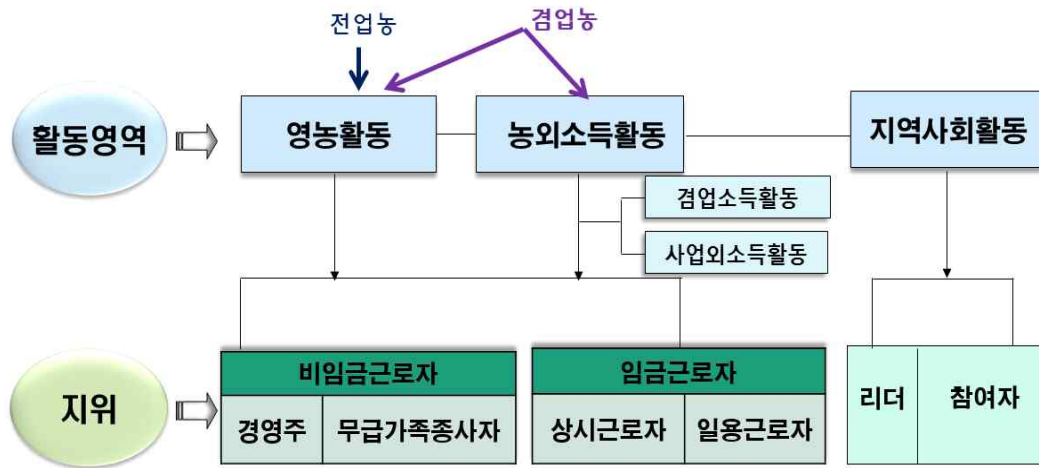
- 생산가능 여성인구에 속한 여성농업인은 생애주기와 농업 진입단계에 따라 신규, 청년, 중견 여성농업인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신규 농업인력은 유입 동기에 따라 여성결혼이민자, 후계농업인(창업농, 승계농), 귀농인구로 구분할 수 있음.

그림 2-1. 여성농업인 유형화



- 여성농업인은 활동영역에 따라 영농활동에만 참여하는 전업농과 농외 소득활동을 겸하는 겸업농, 그리고 지역사회활동의 참여자 또는 리더로 구분할 수 있음.
 - 겸업농은 다시 가공, 관광 등 농업외사업에 종사하는 자와 직장취업 등의 사업외소득활동에 종사하는 자로 구분됨.
 - 영농활동과 농외소득활동을 하는 여성농업인의 지위는 비임금근로자와 임금근로자로 구분되며, 비임금근로자는 다시 경영주와 무급가족종사자로, 임금근로자는 다시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로 구분됨.

그림 2-2. 여성농업인 활동영역과 지위



1.2. 여성농업인 활동실태²

가. 과중한 농업노동시간, 경영참여도 증가 추세

○ 2018년 여성농업인이 본인의 직업적 지위를 ‘공동경영주’ 또는 ‘경영주’로 인식하는 경우는 38.4%이며, 가족종사자로 인식하는 비중은 61.6%로 조사되었음.

- 현재 여성농업인의 지위를 남성과 비교하였을 때, ‘예전보다 높지만 남성보다 낮거나 여전히 남성보다 낮다’는 응답률이 62.2%로, 여성농업인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직업적 지위는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남.

² 여성농업인 활동실태는 「2018년 여성농업인실태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음.

- 여성농업인은 농번기에 평균 7.13시간, 농번기와 농한기 중간에 평균 4.43시간, 농한기에 평균 1.81시간의 농업노동시간을 투입하고 있으며, 60대까지는 노동시간이 증가하다가 70대 이상에서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여성농업인이 담당하는 작업으로 수확작업이 88.4%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수확 후 관리 79.3%, 출하준비 68.5% 순으로 주로 수확과 출하와 관련된 작업을 담당하고 있음. 반면, 남편은 주로 농약 살포 86.9%, 비료 주기 86.2%, 논/밭갈이 85.6% 순으로 재배 위주의 작업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여성농업인의 농업경영 참여 영역은 판로결정이 57.6%로 가장 높고, 농사 기술 및 판매 정보 56.1%, 농작물 규모 및 종류 선정 41.7%, 영농자금 결정 30.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여성농업인의 농업경영 의사결정 참여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여성 소유 자산 비중 증가와 농업교육은 여성농업인의 의사결정 참여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지역사회활동의 활성화는 여성농업인의 전문경영인으로서 지위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영농경력이 많을수록, 농업경영 의사결정 참여도가 증가
 - 여성명의 소유 농지면적 비중이 높을수록, 여성명의 재산이 있을수록, 여성 전업농의 의사결정 참여도는 증가
 - 농업교육횟수가 증가할수록, 농업관련 조직 및 지역사회활동이 활발할수록, 여성 전업농의 의사결정 참여도 증가

나. 젊은 여성농업인 중심으로 농외소득활동 증가 추세

- 2018년 여성농업인의 농외소득활동 참여율은 21%로 나타났으며, 30~50대의 젊은 여성농업인의 농외소득활동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30대 이하 30.6%, 40대 29.1%, 50대 27.9%, 60대 23.4%, 70대 이상 12.0%
 - 직거래 등 농산물판매에 일반농 18.7%, 고령농 13.8%, 귀농 11.0%
 - 농업임금노동에 일반농 17.7%, 고령농 16.0%, 귀농 15.8%, 다문화여성 농업인은 시간제 근무에 22.2% 참여
- 여성농업인의 농외소득활동 의향은 2013년 50.9%에서 2018년 62.5%로 증가하여, 여성농업인이 농외소득활동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
- 농외소득활동에 구체적인 의향이 있는 분야는 농산물과 가공식품의 판매가 41.6%로 가장 높고, 농업임금 노동 24.3%, 농산물 가공 23.2%의 순
- 여성농업인의 농외소득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농사일이 많을수록, 가사노동시간이 많을수록 겸업활동 참여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8세 미만 미취학 자녀수가 많을수록, 여성농업인의 가사노동시간 증가로 겸업활동 참여도 감소
 - 경지면적이 많을수록, 여성농업인과 배우자 모두 겸업활동 참여도 감소
 - 여성농업인만 겸업활동을 하는 경우, 임금 일용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를 가진 여성농업인의 농외노동시간이 더 많음.
 - 배우자와 함께 겸업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은 주로 가내 자영업에 무급가족종사자로 종사하고, 본인만 겸업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주로 임금일용근무자로서 종사하는 경향 나타남.

다. 여성농업인의 지역사회활동 참여 증가 추세

- 2018년 여성농업인이 가장 많이 가입한 단체는 마을 부녀회나 노인회로 가입률은 79.8%로 나타남.
- 30대 이하의 가입률은 49.9%, 40대 이후는 가입률이 72% 이상

- 농촌지역의 활력 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에는 지역주민의 실질적 참여가 중요하며, 특히 서비스 산업의 성격이 강한 농촌관광, 도농교류 등에서는 여성의 참여가 더욱 요구됨. 일본과 유럽의 농촌에서 볼 수 있듯이, 농촌관광이나 마을사업 등에 여성농업인의 적극적 참여가 선진국과 같은 추세임. 이와 같은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와 지역사회의 수요 증대로 중년층의 여성농업인을 중심으로 부녀회, 여성농업인단체 지역사회활동이 증가 추세임.
- 농촌사회의 고령화와 강한 공동체적 특성으로 여성농업인 활동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 여성농업인의 지역사회활동이 도시에 비해 활발한 편임. 여성농업인의 지역사회활동은 마을사업 참여 및 봉사활동, 그리고 마을노인 돌봄, 다문화 관련 사업, 도농교류사업 참여 등 다양화 되고 있음.
- 과거 권위주의 리더십에서 민주적 조정과 관리가 새로운 리더십의 핵심이 되면서 마을리더로서 여성의 역할도 증대되고 있음. 농업활동에 참여하는 여성농업인의 비율이 증가하고 농촌사회에 양성평등분위기가 확산될수록 여성의 사회참여도는 계속 증가될 전망이다.

1.3. 여성농업인의 애로사항³

가. 농업 및 농촌생활의 어려움

- 「2018년 여성농업인실태조사」에서 여성농업인은 농업에 종사하면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 ‘농업소득이 적고’, ‘농업노동이 힘들다’는 응답이 각각 27.3%, 26.4%로 가장 높게 나타남.

³ 여성농업인의 애로사항은 「2018년 여성농업인실태조사」, 강혜정 외.(2008) 등의 선행연구, 현장면담조사 등의 결과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음.

- 「2018년 여성농업인실태조사」에서 여성농업인이 여성으로써 겪는 어려움은 ‘농사일에 체력이 부족’이 32.8%, ‘농사와 가사 병행이 어려움’ 24.5%, ‘농기계 사용이 어려움’ 16.1% 등으로 조사되었음.

나. 영농활동 애로사항

- 선행연구와 현장면담조사 결과, 영농활동에서 여성농업인이 겪는 애로사항으로 농사일과 가사일 이중의 힘든 육체노동의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음. 즉, 관례적으로 여성의 몫으로 여겨지고 있는 가사일, 자녀 양육, 노인 돌봄 등을 농사일과 병행하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나타남.
- 도시근로자 여성도 일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이 있으나,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 등을 중심으로 직장여성의 가사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 대표적인 사업은 자녀의 출산과 양육에 관련된 출산휴가, 자녀양육 및 교육 등의 휴직 및 보육서비스 지원 등임.
- 그러나 여성농업인을 위한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대책은 정책의 접근성 측면에서 아직 미흡한 실정임. 여성농업인도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서의 지원정책 대상자에서 제외되지는 않으나, 해당 정책 지원이 시·군 중심으로 추진되어 읍·면까지는 보급 및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직장여성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여성농업인의 가사노동의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 사업을 농식품부 여성농업인 전담부서에서 시행할 필요가 있음.
- 농업인의 입장에서는 영농 및 농기계 기술 부족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나타남. 농업기계와 영농기술의 발달로 과거의 노동집약적 영농방식은 변화하고 있으나, 여성농업인은 영농기술교육 참여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음. 농사일과 더불어 수행하는 가사노동과 자녀양육 등으로 농업교육 참여가 어렵고, 대부분 영농기술교육이

남성 대상 교육프로그램으로 운영되어 남편이 주로 영농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임. 농기계 또한 대부분 남성위주로 설계·제작되어 여성농업인이 사용하기 어렵고, 작동 및 조작법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어 농기계 이용률도 낮은 편임. 이러한 영농 및 농기계 기술 부족 문제는 여성농업인의 육체적 농업노동 부담을 증대시키고, 농업생산성은 하락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음. 따라서 여성농업인도 영농기술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교육기회 확대와 환경조성이 필요하고, 여성친화적 농기계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할 것임.

- 생산자 조직 참여의 어려움도 여성농업인이 농업인으로서 느끼는 애로사항으로 제시되었음. 남성농업인이 경영체의 대표로 작목반, 농업법인, 농협 등의 생산자 조직에 참여하며, 관행적으로 농업보조자로 인식되는 여성농업인의 참여는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음. 농업의 전문화 및 규모화 추세에서 작목반 등의 생산자 조직은 영농기술 및 정보습득의 핵심 채널이며, 작목반원간 기술 및 정보교류가 농업경영에 중요한 자원이 될 것임. 따라서 여성농업인도 시장정보 및 영농기술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인적 네트워크를 쌓는 방안으로 생산자조직 참여 확대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 영농활동 및 생활고충을 상담할 곳이 없는 문제도 애로사항으로 제시되었음. 가부장적인 문화가 강한 농촌 공동체사회에서 여성농업인이 비공개로 편하게 상담할 수 있는 곳은 거의 없음. 따라서 영농활동 및 농촌지역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문제, 부부 및 자녀 문제 등의 생활문제, 여성농업인 정책 문의, 영농기술 등의 영농 고충을 상담해 줄 수 있는 창구 마련이 필요함.

다. 농외소득활동 애로사항

- 「2018년 여성농업인실태조사」에서 여성농업인의 농외소득활동 참여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기회 및 정보 부족이었으며, 고령농은 신체적 한계로 나타났음.

- 선행연구와 면담조사에서 나타난 농외소득활동에서 여성농업인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은 크게 투자자금, 인력관리, 마케팅과 홍보 등과 관련된 경영의 어려움과 가사일 병행으로 인한 어려움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가사일 또는 농사일과 병행하는 어려움과 더불어 새로운 기술개발 및 상품 개발을 위한 투자자금 부족, 상품 판매처 확보 문제, 마케팅 및 제품 홍보 부족 문제, 식품 위생 및 인증제도 등에 대한 법적 지식 부족 문제, 종업원 고용 및 관리 등이 제약 및 어려움으로 나타났음.
- 여성농업인이 경영 또는 참여하는 농관련 사업체는 대부분 소규모 영세 사업체로 투자자금이 부족하고 판매처 확보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가사일과 농사일만 하다가 창업을 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리더십과 경영역량이 부족한 편임. 특히 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음. 따라서 여성농업인을 위한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창업과 경영관리에 대한 교육 등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대규모 시설과 위생설비 등을 요구하는 식품위생가공법 등의 법과 제도적 규제가 농산물 가공업을 하는 여성농업인에게 큰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음. 이 밖에 농촌 고용노동시장의 비활성화로 인력 고용에 상당한 애로 사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사례조사 결과, 사업을 확장하거나 창업을 하고 싶어도 노동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음.

라. 지역사회활동 애로사항

- 지역사회활동에 참여하는 여성농업인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역시 가사일, 농사일과 지역사회활동을 병행하는 문제로 나타났음. 마을개발 사업 등의 전문지식과 정보수집 및 활용 능력 부족도 큰 제약요인이었음. 또한 사회참여 경험과 리더십 부족도 어려움으로 나타났음. 따라서 회의 및 토론 능력 함양 등의 리더십 교육, 정보수집 및 활용교육, 마을사업에 여성리더 참여 활성화 방안, 여성이장마을 사례 홍보 등의 정책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임.

- 농촌지역의 보수적 성역할 고정관념과 경제 및 사회활동에서 성차별 의식은 여성농업인의 성장 한계로 지적되었음. 또한 여성 스스로 본인의 능력을 비하하고 자신감이 부족한 소극적인 태도도 문제로 제기되었음.

- 중장년 여성농업인은 불평등 문제보다는 여성농업인 역할 활성화의 장애요인을 가장 큰 제약 및 어려움으로 제시하였음. 즉, 활동성이 높은 중장년 여성농업인에게는 남녀차별과 같은 의식적인 문제보다는 일과 가사의 양립을 유지하는 문제와 각 활동 영역에서의 전문능력 부족 문제가 가장 큰 활동상 제약으로 나타났음. 따라서 여성농업인의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능력개발을 촉진하는 대책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임.

그림 2-3. 여성농업인의 활동 제약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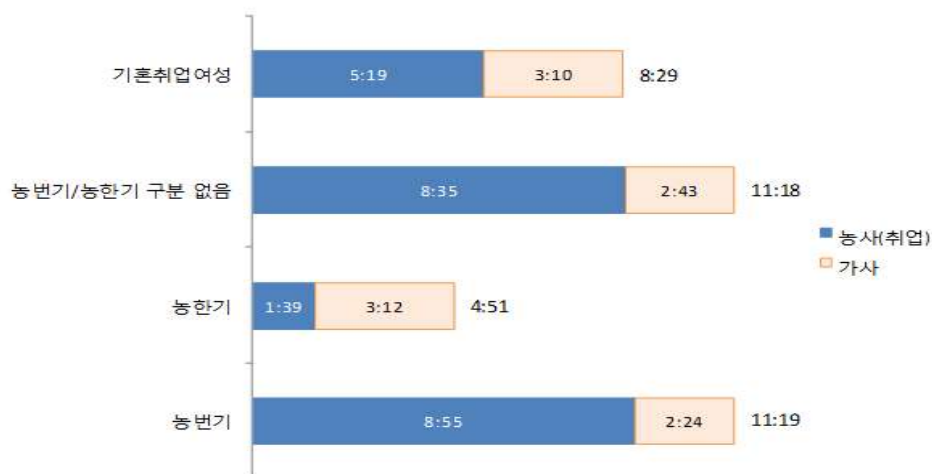
2. 여성농업인의 노동가치

2.1. 여성농업인 농업노동시간

- 여성농업인의 농업노동시간은 가족농업노동시간의 42%(2017년), 고용농업노동시간의 73%(2017년), 절반이상의 농사일 담당 53%(2018년) 등으로 나타나, 농업인력으로서 여성농업인의 중요성을 알 수 있음. 임금 취업자로 여성농업인의 농업노동시간은 남성에 비해 매우 높음.
- 기혼취업여성의 노동과 가사노동을 합친 총 노동시간은 평균 8시간 29분인 반면, 농번기 여성농업인의 노동시간은 농업노동과 가사노동을 합친 노동시간이 평균 11시간19분으로, 여성농업인의 노동시간은 농한기를 제외하고는 기혼취업여성보다 3시간 정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2-4. 여성농업인과 기혼취업여성의 노동시간 비교

단위: 시간:분



자료: 2005년 농업인 생활시간 조사(농촌진흥청), 강혜정 외.(2008)

2.2. 여성농업인 농업노동의 가치

- 여성농업인 농업노동 가치를 계량분석한 결과, 여성농업인(무급가족종사자) 농업노동 시간당 가치는 11,200원으로 계측되었음.
 - 2008~2012년 농가경제조사 패널자료(panel data)를 이용하여, 다산출물(multi-output)을 생산하는 농가에 있어서 가족 여성농업인 농업노동의 한계생산가치를 추정하여 농촌고용임금과 상대 비교를 통해 여성농업인의 잠재임금을 도출하였음⁴.
 - 여성농업인 농업노동을 상대적으로 많이 투입하는 전작, 채소, 특작, 논벼농가 평균치

- 여성농업인의 농업노동과 가사노동의 일일 가치는 119,203원
 - 농업노동시간당 11,200원×8.35시간 = 93,520원
 - 가사노동시간당 10,569원×2.43시간 = 25,683원
 - ※ 통계청(2018), “가계생산 위성계정 작성결과”에서 가사노동의 시간당 임금은 1만 569원, 1년 710만 8,000원

- 여성농업인은 최소 90일 이상 최대 365일 농업에 종사하므로, 여성농업인의 노동가치는 최소 10,728,270원(119,203원×90일)이며, 최대 43,509,095원(119,203원×365일)으로 나타남.

- 여성농업인의 평균 노동가치(27,118,683원)를 전체 여성농업인(793,001명)에 적용한 결과, 전체 여성농업인의 직업적 가치는 21조 5,051억 원으로 나타남.
 - 2018년 농업생산액(50조 1,890억 원)과 비교하면, 여성농업인의 노동가치는 농업생산액의 42.8% 수준의 가치

⁴ 이용한 자료 및 분석모형에 관한 설명은 부록 1 참조

<참고자료>

통계청(2018), “가계생산 위성계정 작성결과”

- 2014년 무급 가사노동의 시간당 임금은 1만 569원, 1년 710만 8,000원
- 2014년 무급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 360.7조원(명목 GDP 대비 24.3%)
- 음식준비는 총 107조6370억원, 청소 및 정리는 50조3890억원, 상품 및 서비스 구입은 31조9050억원, 의류손질 및 세탁은 19조4120억원, 가족 및 가구원을 돌보는 가사노동은 93조5640억원 등

3. 여성농업인 역할의 중요성

3.1. 여성농업인 역할변화

- 과거 여성농업인은 농업보조자와 농업취업자로 간주되었으나, 현재 농업·농촌의 환경변화에 따른 여성농업인의 새로운 역할이 요구되고 있으며 농업 주종사자, 농업CEO, 지역사회 리더, 농관련 사업 경영자로서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음.
- 채소·축산·과수의 성장, 소득 중심 작목 전환 및 친환경 농산물 생산 증대 등의 농업생산구조 변화에 따라 여성농업인이 가지고 있는 기획·회계·정밀한 농작업 역량 등이 요구되고 있으며, 관련 농업분야에서 경영주 또는 공동 경영주로서 역할이 부각되고 있음.
- 마을기업 활성화, 고령농·귀농·다문화가정 증가, 양성평등 의식이 확산되는 농촌사회에서 도농교류, 마을개발 활동, 돌봄 및 후원자, 멘토 등의 지역사회 활동에 여성농업인이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새로운 마을리더로서 역할이 나타나고 있음.

- 농업의 생태서비스 기능, 전통식품·향토음식의 상품화, 농산물 가공 산업의 성장으로 농업의 외연이 확대됨에 따라 6차산업, 도농교류, 직거래 등의 분야에서 여성농업인의 역량을 발휘함으로써 농외소득활동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경제주체로서 역할이 중요하게 되었음.
- 최근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농업정책도 생산중심의 농업에서 벗어나 농업환경 개선과 전통문화 계승 등의 공익적 기능을 강조하는 농업정책으로 바뀌고 있음⁵. 마을 공동공간에 꽃과 나무 심기 등 깨끗한 농촌 만들기 관련 사업 추진과정에서 여성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종가집 음식 전수, 향토음식 계승 등의 전통문화 계승 및 전수자로서의 역할도 담당하고 있음.
- 이와 같이, 여성농업인은 농가인구 감소와 고령화 시대에 중요한 농업인력으로서, 새로운 소비 변화에 부응하는 농업관련사업의 경영자로서, 농촌사회 활력을 증진시키는 지역사회활동 참여자 및 지역리더로서 그 역할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런 역할을 통해 미래 농업·농촌의 성장 동력으로 기여하고 있음.

⁵ 영국이 198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농촌환경관리협약이나 스위스의 공익형 직불제(1993년), 일본의 다원적 직불제(2015년) 등도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연계된 정책사례임.

그림 2-5. 농업·농촌환경변화에 따른 여성농업인의 역할



3.2. 여성농업인 역할의 중요성

□ 농가소득을 높이는 역할

- 여성농업인은 절반의 농업노동을 담당하고 농외소득활동에 참여하여, 농가의 소득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음.
 - 「2013년 여성농업인실태조사」에서 여성응답자의 71%가 농가소득의 50%이상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작, 노지채소 분야에서 여성농업인의 농가소득 기여율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 2008~2016년 농가경제조사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회귀분석(OLS)으로 계측한 결과, 여성농업인 농업노동투입으로 농업소득은 연간 11.3% 증가하며, 농가소득은 5.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농업의 공익적 기능의 지킴이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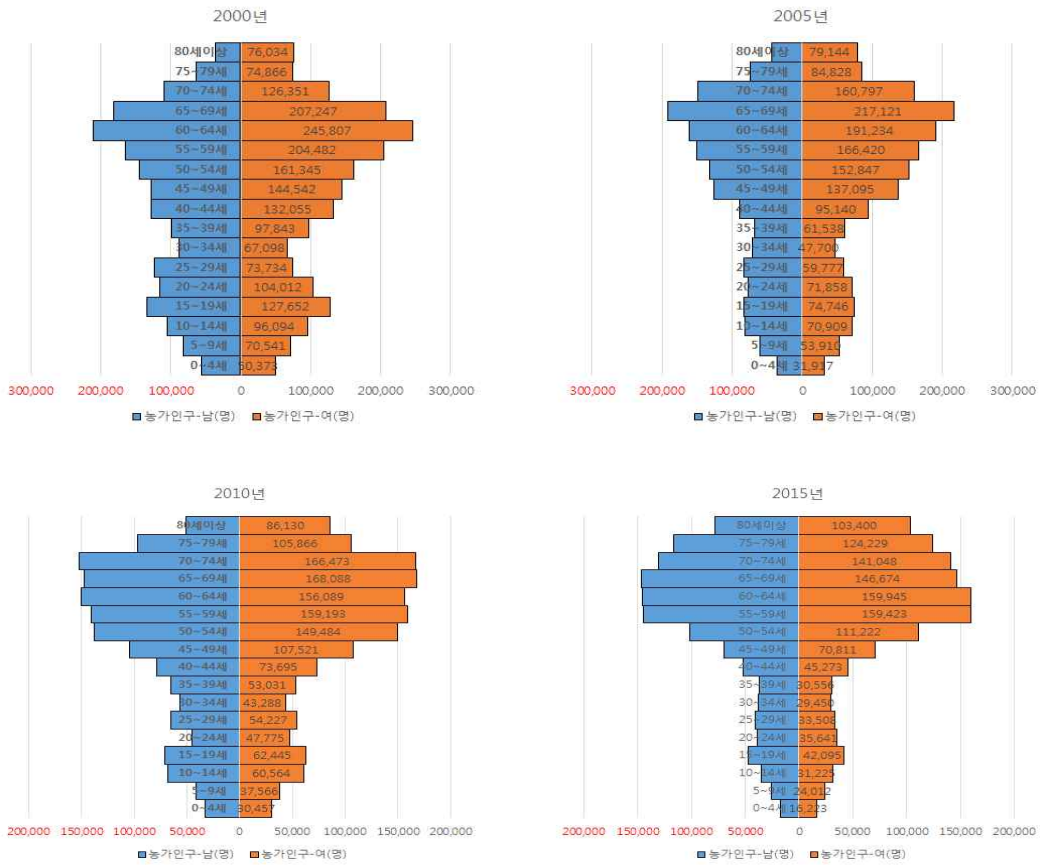
- 농업은 식량 생산기능 외에도 토양보전과 수자원 함양, 생물다양성 유지, 농촌사회 유지, 국토 균형발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하고 있음. 농업계는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농업의 가치를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한목소리를 내었고, 2018년 3월 발의한 개헌안에 ‘농업의 공익적 기능’이 명시되었음.
- 여성농업인이 영농활동에 참여하는 자체만으로도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친환경생태계를 유지하는 효과를 발휘하므로, 농업·농촌의 가치를 보전하고 유지하는 여성농업인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 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이러한 측면에서 여성농업인에 대한 지원정책은 시혜적 복지가 아니라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정당한 사회적 보상차원으로 접근할 수 있음.
 -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연계하여 2018년부터 농민수당(농민기본소득)을 도입했거나 도입을 약속한 지방자치단체들이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여성농업인이 농민수당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2013년 기준 농지원부에 농업인으로 등재된 여성비율은 19%에 불과하여, 직불제처럼 농가단위가 아니라 농업인 개개인을 대상으로 농민수당이 지급된다면 여성농업인이 소외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여성농업인을 포함하여 실제 농사짓는 농업인을 위한 농업인 규정이 새롭게 마련해야 할 것임.

□ 지방소멸위험을 감소시키는 농촌 공동체 재생 역할

- 농촌의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고령층은 계속 잔존하고 젊은 연령층의 전입 없는 전출이 지속된다면 향후 농가 인구구조는 60대 이상 고령층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구조가 될 것이며, 이 고령층 인구가 사망하는 시기에 새로운 젊은 인구가 전입되지 않는 한, 농촌사회 자체가 사라지거나 농업 중심의 농촌이 다른 형태의 사회로 대체될 것으로 전망됨.

그림 2-6. 연령별 성별 농가인구구조 변화, 2000~2015년



자료: 농림어업총조사, 통계청.

- 특히, 젊은 여성인구의 전입 없는 전출이 지속된다면 지방소멸을 가져올 수 있음을 나타내는 지방소멸위험지수⁶는 농촌지역의 걱정 여성인구 유지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음.

- 지방소멸위험지수는 ‘20~39세 여성인구 수/ 65세 이상 고령인구 수’로 정의하며, 소멸위험지수 값이 1.0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그 공동체는 인구학적 쇠퇴위험 단계에 진입하게 되었음을 의미하고, 이 지수가 0.5 이하일 경우 극적인 전환 계기가 없는 경우 소멸위험성이 높음을 의미함.

표 2-1. 소멸위험지수

구분		소멸위험지수
소멸위험 매우 낮음		1.5 이상
소멸위험 보통		1.0~1.5 미만
주의단계		0.5 ~1.0 미만
소멸위험지역	소멸위험진입단계	0.2~0.5 미만
	소멸고위험지역	0.2 미만

- 2018년 6월 기준 전국 소멸위험지수는 0.91이며 비수도권의 모든 도 지역은 소멸위험지수가 1.0 미만인 ‘소멸주의단계’에 진입하였음.
 - 비수도권 지역은 수도권으로 여성인구 유출로 인해 인구감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기존의 농어촌 지역은 귀농 등에 의한 중고령층 인구 유입에도 불구하고 청년 여성인구 유출에 의해 소멸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청년 여성인구의 유출은 지역 존속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여성 청년인구의 이탈은 20~39세 가임 여성인구 비중의 감소를 의미하고,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면 지방소멸의 가속화 내지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음.

6 지방소멸위험지수는 젊은 여성인구의 수도권 유출이 지방소멸을 가져올 수 있다는 마스다 히로야(2014)의 방법을 적용하여 이상호(2015)의 「한국의 지방소멸에 관한 7가지 분석」에서 처음으로 개발하여 사용하였음.

- 연령별 성별 농가인구총조사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농가인구 소멸위험지수를 계산한 결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멸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지역 소멸위험지수를 낮추기 위해서는 농촌지역에 20~39세 여성 인구 수 비중이 증가되어야 함. 2015년 기준으로 여성농가인구가 4배 증가하면 소멸위험지수가 '1'의 값이 되어, 위험지수가 보통수준으로 감소함.
 - 농가인구 중 여성농업인 수가 10% 증가하면, 농가의 소멸위험은 22%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됨.
- 이와 같이 농촌지역 여성농업인은 지방소멸위험을 감소시키는 농촌 공동체 재생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농촌지역 유지를 위해서는 젊은 여성농업인의 유입을 촉진시키는 정책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임.

표 2-2. 연도별 농가인구 소멸위험지수 예측 결과

연도	소멸위험지수	비고
2000년	0.39	소멸위험진입
2005년	0.24	소멸위험진입
2010년	0.20	소멸위험진입
2015년	0.13	소멸고위험

□ 도시와 농촌을 잇는 가교역할

- 여성농업인은 도농교류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도시와 농촌을 잇는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즉, 소비자 직거래, 팜스테이, 체험사업 등의 도농교류사업에서 남성과는 차별화된 여성농업인만의 장점이 부각되고 있음.
- 귀촌 귀농인의 정착을 위한 기존 여성농업인의 마을살이 자문 및 지원, 기존 마을주민간의 오해 및 갈등 중재 등의 가교역할이 중요하게 되었음.

- 예비·새내기 청년여성농업인(창업농, 귀농 등)에게 농사정보와 농촌살이 정보 등을 전수해주는 멘토로서 여성농업인의 역할이 중요함.
- 농촌여성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과 한국생활문화 습득, 영농교육 교육 등에서도 여성농업인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
- 이와 같이 여성특유의 역량으로 여성농업인은 도시와 농촌을 잇는 가교, 농촌과 농업의 지속성을 위한 중대한 역할을 맡고 있음.

제 3 장

여성농업인 전담부서 설치방안

1. 여성농업인 전담부서 설치의 필요성

-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의 국정철학을 농정에서 실현하기 위하여
 - 문재인정부의 ‘포용국가론’은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과 복지를 강화해 출산·양육·교육·건강·주거·노후에 대한 걱정을 줄이고,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되도록 하며, 노동존중사회, 성평등을 실현하는 인권과 복지가 보장되는 것을 말함.
 - 국정 5개년 계획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을 농정에서 실현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농업정책에서 소외되었던 여성농업인을 위한 정책 강화가 선결되어야 함. 이를 통해 농업·농촌의 약자를 포용하는 사람 중심의 농업을 실현할 수 있음.

표 3-1. 여성농업인과 관련된 정부 국정과제

분 야	내 용
여성농업인 관련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별, 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일·생활의 균형 실현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 •농어업인 소득안전망의 촘촘한 확충

□ 정부부처별 성평등정책을 담당하는 부서 신설 흐름에 부합

- 최근 미투 운동이 확산되면서 성희롱 예방뿐만 아니라 성평등 조직문화와 정책 구현을 목표로 정부부처별로 성평등 집행부서를 잇따라 신설하고 있음. 예를 들어, 경찰청은 성평등정책담당관실, 대검찰청은 양성평등담당관실, 국방부는 양성평등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는 성평등문화정책관에서 성평등 위원회를 신설함.
 - 전 부처 성평등 관련 정책의 총괄·조정 및 민관 거버넌스 기능을 수행할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 등 성평등정책 강화 추세
- 농업인의 절반이 여성농업인이고, 여성결혼이민자가 농촌지역에 많이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영농현장 및 농촌지역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인권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성평등 농정을 추구할 수 있는 부서가 필요함.
- 따라서 농식품부내에도 농업·농촌 성평등정책 업무를 담당하고 농정의 성인지정책 평가 및 점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여성농업인 전담부서 설치가 필요함.

표 3-2. 정부부처 및 기관 성평등 추진체계 설립 현황

부처 및 기관	소속 위원회	집행부서	비고
경찰청	성평등위원회	성평등정책담당관실	설치완료
법무부	성평등위원회	성평등정책관	개혁위·대책위 권고
대검찰청	-	양성평등담당관실	설치완료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	-	발족
문화체육관광부	성평등위원회	성평등문화정책관	대책위 권고
보건복지부	양성평등위원회	양성평등전담부서	설치

□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여성농업인 정책 추진을 위해서

- 여성가족부는 성평등 정책, 고용노동부는 여성노동 정책, 보건복지부는 여성 복지정책 등 관련부서에서 여성의 평등, 노동과 복지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으나, 농업·농촌과 연계된 여성정책은 관련부서에서 다루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여성농업인은 농업종사자, 가정주부, 지역사회활동가 등으로써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농업·농촌과 연계된 종합적인 여성정책은 농식품부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담당하는 것이 타당함.
-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에서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 성평등 교육, 경력단절여성 취업, 청소년 방과 후 교실 등 여성정책 관련 센터를 지역별로 운영하고 있으나, 대부분 시군단위에 위치하여 읍·면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에게 접근성이 떨어져 정책수혜를 받기 어려운 실정임.
- 농식품부 타부서에서 수행하는 경영인력, 농촌복지 등에서 여성농업인 관련 업무가 일부 있으나, 이는 남성농업인 대상자와 혼재되어 추진되는 정책으로 여성농업인의 정책 소외 및 참여저조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여성정책과 농업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여성농업인의 인력육성 및 복지 등 관련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부서 설치가 필요함.

표 3-3. 여성 관련 센터의 지역별 분포

센터명	지역별 분포
해바라기 센터 (여성가족부)	•21개중앙 1개, 특·광역시 17개 •도단위 21개: 경기(5), 강원(2), 충북(2), 충남(1), 전북(3), 전남(2), 경북(3), 경남(2), 제주(1)
여성새로일하기 센터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	•특·광역시 62개 •도단위 89개: 경기(29), 강원(8), 충북(6), 충남(10), 전북(8), 전남(9), 경북(7), 경남(8), 제주(3), 세종(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여성가족부)	•특·광역시 72개 •도단위 132개: 경기(31), 강원(8), 충북(13), 충남(15), 전북(10), 전남(16), 경북(15), 경남(20), 제주(3), 세종(1)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공동육아나눔터 (여성가족부)	•특·광역시 49개 •도단위 79개: 경기(19), 강원(12), 충북(4), 충남(10), 전북(4), 전남(7), 경북(9), 경남(13), 제주(1)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여성가족부)	•특·광역시 63개 •도단위 155개: 경기(30), 강원(18), 충북(12), 충남(15), 전북(14), 전남(21), 경북(23), 경남(19), 제주(2), 세종(1)

□ 남성농업인과는 다른 여성농업인이 겪는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서

- 여성농업인은 남성농업인과 비교하여 50대, 60대 비중이 높아 중장년층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 참여도가 높으며 식량작물, 채소·산나물, 특용작물·버섯농업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 비중이 남성농업인보다 높음.

- 여성농업인의 겸업 참여도는 36.9%이며, 2종 겸업 참여도가 남성농업인보다 상대적으로 높으며, 남의 농업에 종사하는 비중은 여성이 72%로 남성 27.9%보다 높게 나타남. 따라서 여성농업인은 농업의 고용노동자로서도 크게 기여하고 있음.
- 농가 경영주 중 여성은 17.8%, 남성은 82.2%(2015년 기준)로, 여성경영주 대부분은 사별 등으로 배우자 없는 70대 이상 저학력의 고령 여성농업인이며, 농축산물판매금액이 낮고, 경지면적이 적은 영세농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 가사노동시간과 농업노동시간을 합친 총 노동시간은 여성의 경우, 연간 1,537시간이며, 남성은 연간 725시간으로, 여성농업인은 남성농업인의 2배 이상의 노동시간을 투입하고 있음.
 - 여성 가족노동시간은 304시간, 남성 가족노동시간은 414시간
 - 요일평균 가사노동시간은 여성의 경우 3시간 5분이며, 남성은 42분
- 남성농업인에 비해 여성농업인의 사회참여도 또는 지역사회 리더 비중이 매우 낮은 수준임.
 - 여성 마을이장 비중은 8.1%
 - 여성농업인의 지역농업 대의원회 및 이사 비중은 각각 18.9%, 10%
- 여성농업인과 남성농업인의 통계비교에서도 나타나듯이, 여성농업인은 신체적 한계와 가사노동 병행으로 남성보다 농업노동 참여에 어려움이 많으며, 노동시간에 비해 사회적 지위는 낮음. 따라서 남성농업인과는 다른 여성농업인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농업인 전담부서 설치가 필요함.

표 3-4. 여성농업인과 남성농업인 비교 통계

항목		여성농업인	남성농업인	출처
농업주종자 농가인구(명) 및 비중(%)		793,001명 52.7%	712,482명 47.3%	2017년 농림어업조사 (통계청)
농업주종사 가구의 연령별 비중(%)	30세 미만	0.9	1.3	2015년 농림어업총조사 (통계청)
	30대	2.0	2.7	
	40대	7.0	7.4	
	50대	22.7	19.9	
	60대	31.3	30.7	
	70대	28.4	29.2	
	80세 이상	7.7	8.8	
농업주종사 가구의 영농형태별 비중(%)	논벼	41.8	42.2	
	식량작물	11.8	10.2	
	채소·산나물	19.2	18.3	
	특용작물·버섯	3.4	3.2	
	과수	16.1	16.7	
	약용작물	0.8	0.9	
	화초·관상작물	1.1	1.2	
	기타작물	0.9	0.9	
농업주종사 가구의 전/겸업별 비중(%)	전업	63.1	63.8	
	겸업	36.9	36.2	
	1종겸업	17.2	19.9	
	2종겸업	19.7	16.3	
농업종사가구 원 비중(%)	전체	49.5	50.5	
	자기농업에 종사	49.8	50.2	
	남의농업에 종사	72.1	27.9	
	자기농업하면서 남의농업 종사	45.2	54.8	
농가 경영주 비중(%)		17.8 (194,072명)	82.2 (894,446명)	
경영주의 혼인상태(%)	미혼	1.0	1.9	
	배우자있음	16.9	91.3	
	사별	80.2	4.7	
	이혼	2.0	2.1	

경영주의 농축산물판매금 액 비중(%)	판매없음	14.5	10.5	2017년 농가경제조사 (통계청)
	1천만원 미만	71.3	53.5	
	1~5천	12.4	27.0	
	5천~1억	1.3	6.0	
	1억원 이상	0.6	3.1	
경영주의 연령분포(%)	30세 미만	0.05	0.1	
	30대	0.6	1.4	
	40대	4.0	8.5	
	50대	13.1	24.7	
	60대	26.0	31.5	
	70대	41.8	26.4	
	80세 이상	14.4	7.4	
경영주의 경지면적 분포(%)	0.1ha 미만	4.2	2.7	
	0.1~0.5ha	59.0	39.1	
	0.5~1ha	22.4	23.7	
	1~2ha	10.2	18.5	
	2ha 이상	4.2	16.0	
경영주의 학력분포(%)	받지 않았음	32.9	5.8	
	초등학교	42.7	30.0	
	중학교	9.8	19.9	
	고등학교	9.9	30.0	
	4년제미만 대학	2.1	6.1	
	4년제대학교 이상	2.6	8.2	
자영농업 노동투하량 (시간)	가족노동	304.23	414.39	
	품앗이	5.90	4.12	
	고용노동	89.81	33.92	
	일손돕기	11.97	16.80	
전/겸업별 가족농업노동 시간	전업	360.93	488.24	
	1종겸업	442.51	626.66	
	2종겸업	173.76	232.95	
영농형태별 가족농업노동	논벼	234.74	336.64	
	과수	513.67	688.77	

시간	채소	462.09	535.99	
	특용작물	240.67	218.45	
	화훼	956.10	1,112.26	
	일반밭작물	247.98	350.62	
	축산	423.87	950.84	
	기타	366.29	577.00	
경영주 연령별 가족농업노동 시간	50세 미만	253.53	376.74	
	50대	356.37	509.58	
	60대	358.49	480.80	
	70세 이상	260.22	349.76	
가사노동 (요일평균, 시간:분)	가정관리	2:29	0:32	2014년 생활시간조사 (통계청)
	가족 및 가구원돌보기	0:36	0:10	
여성명의 보유자산	예금통장	81.1%		2013년 여성농업인실태 조사 (통계청)
	보험	43.7%		
	농지	27.5%		
	집 또는 건물	23.7%		
여성농업인의 사회참여도	마을이장 수	3,009명 (8.1%)	33,974명 (91.9%)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과 내부자료 농협중앙회 내부자료 (2018. 12. 기준)
	농협중앙회 농협대의원회	0.34%	99.66%	
	지역농협 조합장(1,122명)	0.54%	99.46%	
	지역농협 대의원회	18.9%	81.1%	
	지역농협 이사회	10%	90%	

□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전담부서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서

- 여성농업인 정책의 현장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정책집행 연계성 강화가 중요함. 중앙부처의 여성농업인 정책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으로 원활히 연계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련 업무를 담당할 전담조직이 정비될 필요가 있음.

- 농식품부 내 여성농업인 전담부서가 설치되어 예산확보가 이루어지고 신규 업무가 추진된다면, 지자체에서도 중앙부처의 관련 사업을 전담할 부서가 설치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됨. 따라서 농식품부 내 여성농업인 전담부서 설치의 지자체의 관련 전담부서 설치의 유도책으로 작용될 것임.
- 지방자치단체의 여성농업인 정책 추진 체계 및 성과에 대한 정책평가를 법률에 반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현행 지자체 합동평가지표(5년 단위)를 통한 정책평가만으로는 중앙부처와 지자체간의 여성농업인 정책 협업에 한계가 존재하므로, 여성농업인 정책 평가체계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유사입법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 3조의 3(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시행령 제3조(추진실적의 평가 등)가 있음.

2. 여성농업인 관련 업무 현황

2.1. 농림축산식품부 여성농업인 담당부서 연혁

- 1998년 김대중 정부 당시 농림부 내에 여성정책 전담부서인 ‘여성정책 담당관실’이 만들어진 이후, 2004년 8월부터 농업구조정책국 여성정책과가 여성농업인 정책 전담부서로서 역할을 수행하였음.
- 2008년 2월 농촌정책국 ‘농촌사회여성팀’으로 통합되었고, 2009년 10월에는 농촌사회과 농촌여성복지팀으로, 2013년 9월부터 현재까지는 농촌복지 여성과에서 여성농업인 관련 사업을 담당하고 있음.

표 3-5. 농림축산식품부 여성농업인 담당부서 연혁

연 도	실국명	과(팀)명	주요업무
'98.3 ~ '04.7	기획관리실	여성정책담당관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농업인력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수립 • 농업인 복지에 관한 사항 -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영세·고령농가 복지, 농업인 자녀 장학금지원, 기타 농촌복지 관련 업무 총괄 • 식생활 개선에 관한 사항
'04.8 ~ '08.2	농업구조 정책국	여성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 농업인의 영유아 양육비 지원 업무 • 농촌복지에 관한 사항 - 취약농가 인력지원, 농촌교육여건 개선, 농촌출신 대학생학자금 지원,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기타 농촌복지 관련 업무 총괄 • 농업인, 소비자단체, 정부협력사업 총괄
'08.2 ~ '09.9	농촌정책국	농촌사회여성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 수립 • 농촌복지에 관한 사항 - 취약농가 인력지원, 농촌교육여건 개선, 농촌출신 대학생학자금 지원,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기타 농촌복지 관련 업무 총괄 • 농촌 다문화 가정 지원사업 추진 • 농촌체험에 관한 사항 • 도농교류에 관한 사항
'09.10 ~ '13.2	농촌정책국	농촌사회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농기획에 관한 사항 • 농촌체험에 관한 사항 • 농촌복지에 관한 사항 - 취약농가 인력지원, 농촌교육여건 개선, 농촌출신 대학생학자금 지원,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기타 농촌복지 관련 업무 총괄 • 여성농어업인 정책 수립
'13.3 ~ 현재	농촌정책국	농촌복지여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농업인 육성정책 수립 • 농촌보육 관련 업무 • 농촌복지에 관한 사항 - 취약농가 인력지원, 농촌교육여건 개선, 농촌출신 대학생학자금 지원,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기타 농촌복지 관련 업무 총괄 • 다문화여성 관련 업무 • 여성농업인 복지 업무

2.2. 농식품부 내 여성농업인 관련 업무현황

가. 농촌복지여성과 여성농업인 업무(여성계 5급 1, 6급 1)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령 운용
 -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사항, 국회 대응
- 여성농업인 육성정책 수립
 -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매년 시행계획 수립, 지자체 계획 수립 유도
 - 여성농업인 육성정책 자문회의 운영,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 관리
 - 5년 단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실시
- 농촌지역 양성평등 관련 업무
 - 공동경영주 제도 활성화에 관한 사항
 - 법 등 제도개선, 홍보 및 교육, 실적 점검 등
 - 공무원, 농업인 대상 양성평등 교육 확대
 - 정부위원회에 여성 비율 40% 이상 유지·관리
 - 여가부 양성평등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대응, 성별영향평가 업무
- 농촌 보육 관련 업무
 - 소규모 어린이집, 이동식 놀이교실, 농번기 주말돌봄방 운영
 - 농촌 특성을 반영한 보육지침 개정 등 복지부와의 협업 사항
- 여성농업인 복지 업무
 - 여성농업인 특화 건강검진 도입과 관련된 사항
 - 여성농업인 수기 공모전 개최
 - 행복바우처 가이드 마련, 여성농업인센터 관련 고시 운영 등

○ 다문화 여성 관련 업무

- 다문화 가족 정책(여가부), 외국인 정책(법무부) 대응
- 다문화 여성에 대한 교육 지원(농촌생활 정착, 농업교육 등)
- 다문화 여성 일대일 후견인제 추진
- 다문화 자녀 언어발달 지원, 부모교육, 성폭력 예방 교육 지원(여가부 협업)

나. 타부서 여성농업인 관련 업무 현황

○ 여성농업인 교육 지원 및 후계농업인 육성(경영인력과)

- 농업인 교육 629개 과정 중 여성 참여율 25%, 여성농업인 특화 교육과정 운영(4개), 학습 동아리 지원(2개), 인력포탈 운영(50개)
- 매년 후계농업경영인 1,800명을 선정·지원, 이 중 20% 여성 선정

○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시 여성 참여 확대 유도(지역개발과)

- 사업평가 시 여성위원 참여 비율을 확인하여 가점 부여
- 지역개발사업 추진위원 교육 시 여성에게 우선 기회 제공

○ 농촌재능나눔에 여성농업인 참여 활성화(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추진팀)

- 스마일재능뱅크를 통해 우수사례 공유·확산, 사회기여도가 높은 여성 농업인을 발굴하여 표창

○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과학기술정책과, 농기자재정책팀, 농촌진흥청 농업공학부)

- 여성친화형 농기계 개발 지속 추진('01~'18 : 97종)
-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여성 친화형 농기계 구입 지원(편이장비 포함)
- 농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에 여성농업인 2인 이상 포함
- 농기계 임대료를 고려 여성농을 위한 농작업 대행 인건비 등에 활용

- 여성농업인 직거래 사업 확대 추진(유통정책과)
 - ‘우수 직거래 사업장 인증’시 여성농업인 참여 정도를 평가
 - 직거래 사업장 인증기준을 개정(‘17.8.23), ‘여성농업인 참여율’을 반영하여 우수 직거래 사업장으로 선정 시, 홍보비 등 지원

- 농협에 여성 조합원 및 임원비율 확대(농업금융정책과)
 - 조합의 여성 임원 선출 확대를 위해 조합 정관례(고시) 개정(‘18.1)
 - 여성임원 선출 시, 전체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는 이사와 여성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는 이사로 나누어 선출할 수 있도록 고시 개정
 - 조합의 양성평등 교육 확대 운영(‘17: 2과정 1,200명 →’18: 7과정 7,600명)

- 소규모 농가의 육묘업 등록시설 기준 완화(종자생명산업과)
 - 부업형태 소규모 농가에 대해 육묘업 등록 시설기준* 적용 제외 등 검토
 - ※ 종자산업법 시행령 : (면적) 화훼·채소 990㎡ 이상, 식량 250㎡ 이상 (장비) 환풍기

- 여성농업인의 소규모 가공 및 창업 지원(농촌산업과, 농진청 농촌자원과)
 - 농업기술센터 등에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설치하여 기반이 없는 여성농업인을 위한 공동 이용 가공 사업장 조성(‘18년 74개소)
 - 전통식품 제조, 향토음식 등 소규모 창업 지원(농진청, ‘18년: 32개소 16억원)
 - ※ 가공시설 설치, 포장개발, 유통 및 품질개선 교육, 홍보 등 지원

2.3. 타 부처 여성농업인 관련 업무현황

가.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는 성폭력예방 및 피해 지원 등의 인권보호사업,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등의 성별영향평가와 양성평등사업,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과 여성인재DB 운영 등의 여성인력 육성사업, 청소년사업, 공동육아나눔터와 아이돌봄지원 등의 가족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여성가족부 정책사업은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한 양성평등사업, 가족지원사업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농촌지역 및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많지 않음. 그러나 성폭력예방 및 피해 지원 사업은 공조 및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음.

표 3-6. 여성가족부의 주요 사업

부서	정책목적	사업내용
여성가족부	인권보호	폭력예방교육 점검 및 지원
		여성긴급전화(1366) 운영 지원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성매매처벌법에 따른 신고보상금 제도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제도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제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 제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강화
	양성평등	성별영향분석평가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여성친화도시 운영
		양성평등 및 여성사회참여확대 공모사업
		정부위원회 위촉직 여성위원 확대
		유엔안보리결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

인력육성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온라인경력개발센터(꿈날개) 운영
	여성인재아카데미 운영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여성인재DB 운영
	가족친화인증제 운영
청소년	청소년 체험활동
	청소년 국제교류
	청소년 참여활동
	청소년증 발급
	위기청소년 상담 및 복지지원(CYS-Net) 운영
	정서,행동장애 청소년 지원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치유 지원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학교밖 청소년 건강검진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청소년 근로권익보호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가출 청소년쉼터 운영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청소년 수련활동 안전 지원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가족	부모역할지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취약위기가족 지원
	아이돌봄지원사업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양육비이행지원제도
	국제결혼 피해상담 및 구조
다누리 콜센터(1577-1366) 운영	

나.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의 여성농업인 관련 사업은 건강관리 및 관련 서비스 지원, 육아 지원 사업 등이 있음. 특히 2014년 복지기능강화 시범사업을 통해 방문상담 및 민간서비스연계, 사례관리 등이 국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데 큰 성과가 있음을 확인하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지역주민과 가장 가까운 전국 모든 읍면동을 복지사업 신청·접수만을 받는 곳이 아니라 복지 기관·보건소·지역주민 등과 함께 협력하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의 중심기관으로 개편하고 있음.

- '16년 1,092개 → '17년 2,600개, '18년 3,500여개 모든 읍면동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시행

표 3-7. 보건복지부의 여성농업인 관련 사업

부서	정책목적	사업내용
보건복지부	건강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공중보건 의사제도
	사회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복지	찾아가는 읍면동 보건복지서비스
	노인	치매검진사업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노인실명예방관리사업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노인자원봉사활성화
	장사제도	
	보육	국공립어린이집확충
		영유아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

다.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는 여성고용정책 전담부서인 ‘여성고용정책과(인원 13명)’를 통해 여성고용차별개선, 직장여성의 출산·육아지원, 여성고용촉진사업, 시간선택제, 유연근무제 등의 일·가정의 양립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음.
- 고용노동부의 여성고용정책사업은 일반 직장여성 대상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어 여성농업인이 정책대상자가 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따라서 무급가족종사자로서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들을 위한 인력육성 및 노동환경개선 사업이 별도로 마련될 필요가 있음.

표 3-8. 고용노동부의 여성고용 관련 사업

부서	정책목적	사업내용
고용 노동부	여성고용차별개선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지원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지원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및 유공자 포상
		여성고용 차별개선 민간 인프라 구축
	출산, 육아지원	출산휴가·육아휴직 등 급여 지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대체인력 채용지원서비스
		직장어린이집 지원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설치 사업
	여성고용 촉진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한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여성고용환경개선 용자사업
		경력단절여성 고용 관련 세제혜택
	일, 가정 양립 지원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
		일·가정 양립환경 개선지원(유연근무제를 도입·확대)

라. 기타

경찰청

- 성평등정책담당관(임기제4급 등 4명) 신설(경무인사기획관 소속 현재 T/F 조직, 향후 직제추진)
- 여성청소년 관련 업무와 성폭력·성매매 관련, 성평등 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 총괄, 성평등 추진체계 확립(전담부서 직제 추진, 지방청 성평등 정책담당자 지정)

중소벤처기업부

- 예산 70억, 2명 타 업무와 병행
- 법령(여성기업법), 기본계획, CEO교육, 보육센터운영(17개), 창업보육실(225개), 해외진출, TV홈쇼핑(송출료), 단체지원(한국경제협회, 사단법인 벤처협회) 등의 사업을 추진하며, 정책대상자는 여성기업인, 여성벤처기업인 등임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기술혁신기반사업(R&D예산 20억)

교육부

- 성평등정책담당관(임기제 4급 등 4명) 신설(경무인사기획관 소속 현재 T/F 조직, 향후 직제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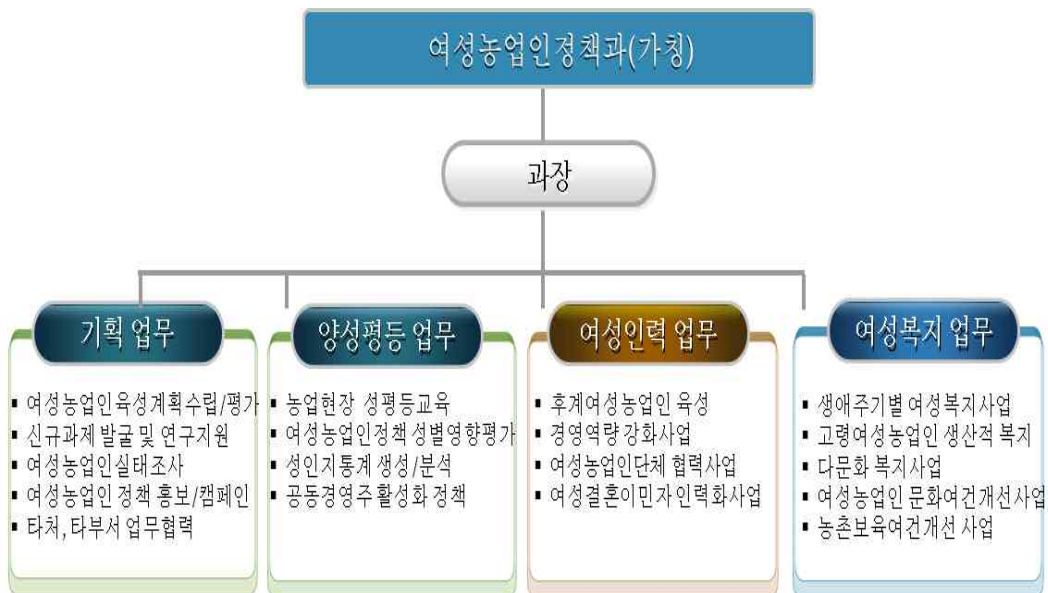
- 여성청소년 관련 업무와 성폭력·성매매 관련, 성평등 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 총괄, 성평등 추진체계 확립(전담부서 직제 추진, 지방청 성평등 정책담당자 지정)

3. 여성농업인 전담부서 설치안

3.1. 조직도

- 여성농업인정책과(가칭)의 업무 분장은 <그림 3-1>과 같이 기획업무, 양성평등업무, 여성인력업무, 여성복지업무로 구분됨.

그림 3-1. 여성농업인 전담부서 조직도(안)



- 여성농업인정책과(가칭)에서 여성농업인 인력육성 및 청년여성 육성정책에 초점을 맞춘다면, 농식품부 조직도상 농업정책국 소속이 적합할 수 있음. 그러나 여성농업인 정책의 대상을 농촌에 거주하는 모든 여성으로 확대할 경우 농촌여성의 인력, 복지, 양성평등 정책을 다른 농촌정책과 연계하기 위해 ‘농촌정책국’ 소속으로 할 수도 있음. 따라서 농식품부 조직도에서 여성농업인 전담부서의 소속은 해당 부서의 업무특성 및 관련 부서와의 협조관계를 고려하여 향후에 논의해야 할 과제임.

3.2. 조직 규모 및 담당업무

□ 여성농업인 전담부서는 4계로 구성

- 여성농업인 전담부서(가칭 ‘여성농업인정책과’)는 여성농업인 정책업무를 총괄하는 과장과 관련 세부 사업운영을 위한 4계(또는 4팀), 즉 기획 계, 양성평등 계, 여성인력 계, 여성복지 계로 구성되며, 각 계의 주요 업무는 <표 3-11>과 같음.
 - **기획** 관련 주요 업무는 여성농업인육성계획 수립 및 평가, 신규과제 발굴 및 연구지원 등의 기획업무, 타처 및 타부서와 관련 업무 협력 등
 - **양성평등** 관련 주요 업무는 농업현장 성평등교육 관련 업무, 성인지통계 생성 및 분석업무, 농업정책 성별영향평가 관리 등
 - **여성인력** 관련 주요 업무는 후계여성농업인 육성업무, 여성농업인 경영역량 강화사업, 여성농업인단체 협력사업,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인력화 사업 등
 - **여성복지** 관련 주요 업무는 생애주기별 여성 복지사업, 고령여성농업인 생산적 복지사업, 다문화 복지사업, 여성농업인 문화여건 개선 사업 등

- 여성농업인 전담부서의 업무량을 농식품부 다른 부서와 관련 다른 부처와 비교할 때, 총 10명(또는 11명)의 전담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전담부서의 적정 인원수 추정을 위한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음.

표 3-9. 전담부서의 적정 인원수 추정

고려사항	근거자료
농식품부 타부서 전담인력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림축산식품부 과단위 평균 인력 규모는 14명 - 최소는 8명(외식산업진흥과), 최대는 21명(국제협력총괄과, 축산정책과)
다른 부처 유사업무 전담인력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인력 규모 13명
조직 구성의 적정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직 구성상 각 계당 최소 인원 2명 이상 배치 - 기획 계 2명, 양성평등 계 2명, 여성인력 계 3명, 여성복지 계 2명(또는 3명)

표 3-10.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인원 및 담당업무

인원	담당업무
과장, 4급 1명	여성고용정책과 업무 총괄
12명	성희롱·성차별 근절대책 추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점형)직장어린이집 제도 운영 • 국제국 소관업무 • 성별임금격차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녀고용평등 근로감독 시행 및 동향 보고 • 남녀고용평등 강조기간 운영 • 직장 내 성희롱 익명신고센터 운영 • 성희롱·차별개선 민간 인프라(고용 평등 상담실, 명예 고용 평등감독관) 제도운영 • 고용평등환경개선 예·결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일 센터(집단상담) 지원 • 여성취업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전후(유사산)휴가제도 · 육아휴직제도 ·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제도·배우자출산휴가제도 운영 및 개선 • 저출산위 대응
	아빠넷 운영, 홍보
	차별개선업무
	• 남녀고평법총괄 • AA운영 • 남녀고용평등강조기간(포상)
	• 모성보호 제도(출산휴가·육아휴직,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배우자출산휴가, 생리휴가 등) 운영 및 개선 • 출산·육아기 사업주 지원금 제도 운영·개선 등
	• 고용 상 성차별 개선 및 이행지도 직장내 성희롱 금지 및 예방 • 차별개선 민간인프라(고용평등상담실, 명예고용평등감독관) 활용
	• 직장어린이집(거점형) • 성별임금격차 개선 지원 등
	(사무실 위치: 광주고용노동청2층) • 신고사건 및 사업장 점검 • 기타 근로기준 정책관 소관 • 각종 민원서류

- 여성농업인 전담부서 인력은 과장 1명, 기획 업무 2명, 양성평등 업무 2명, 여성인력 업무 3명, 여성복지 업무 2명 등으로 배치 가능하나, 여성농업인 전담부서가 고령여성농업인 복지사업까지 담당할 경우 여성복지 업무는 3명의 인력 필요
- 따라서, 여성농업인 전담부서의 적정 업무 인력 규모는 총 **10~11명**
 - 과장 1명, 기획 업무 2명, 양성평등 업무 2명, 여성인력 업무 3명, 여성복지 업무 2명(또는 3명)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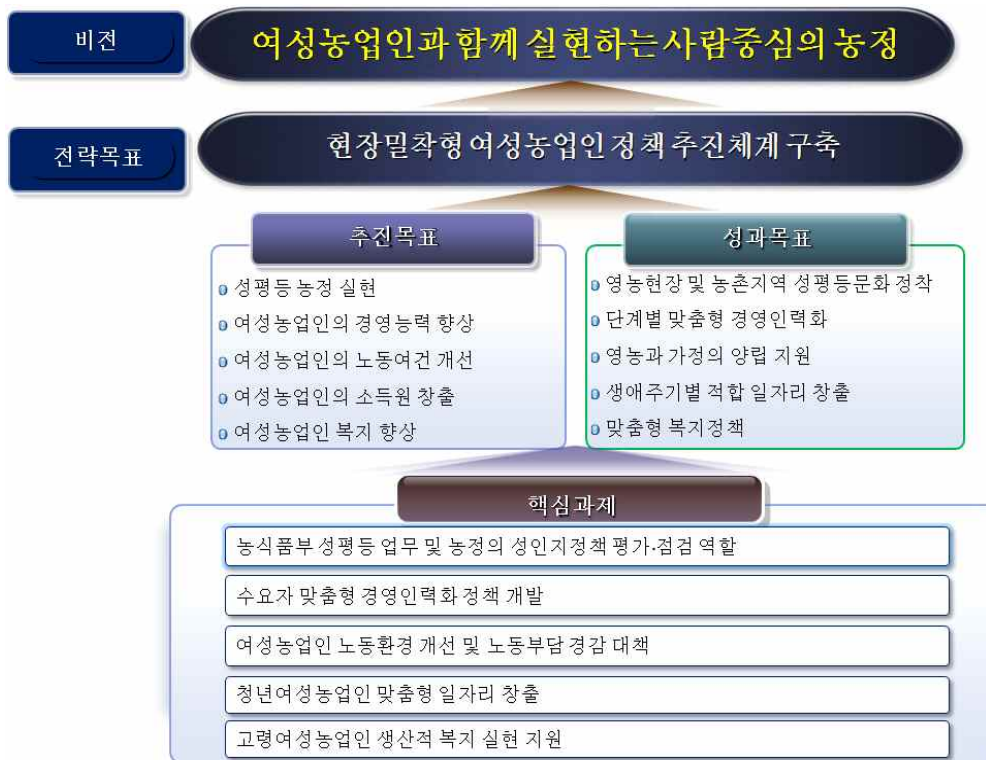
표 3-11. 여성농업인정책과(가칭)의 주요 업무 및 인력 규모

구분	인원	직급	주요 업무
과장	1명	4급 1	•여성농업정책과 총괄
기획 업무	2명	5급 1 6급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농업인육성정책 중장기 계획 수립 •여성농업인육성정책시행계획 수립 및 자문회의 운영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운용 및 국회 대응 •전문가 인력풀 구성 및 네트워크 구축 •여성농업인 육성정책 홍보 및 캠페인 등 •여성농업인 관련 신규과제 발굴 및 연구·평가 업무 •기업연계 여성농업인 참여 사업 발굴 및 지원 •여성농업인실태조사(패널조사) 업무 •여성농업인 정책관련 부처와 업무협조 •예산·결산 등에 관한 사항 총괄 •국정과제 및 종합평가지표 등 평가업무에 관한 사항
양성 평등 업무	2명	5급 1 7급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현장 성평등에 관한 업무 총괄(여가부 협업) •여성농업인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관리 업무 •여성농업인 양성평등 홍보 및 캠페인 등 •여성농업인 정책위원회 참여 확대 업무 •공동경영주 활성화에 관한 사항 •성인지통계 생성 및 분석 업무
여성 인력 업무	3명	5급 1 6급 1 7급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 여성농업인 육성 업무 •중년 및 고령 여성농업인 육성 등 •여성농업인 농업생산성 향상 관한 사항 •여성농업인 교육 등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여성농업인 리더십 양성에 관한 사항 •여성농업인 노동여건 개선 관한 업무 (영농과 가정 양립 지원 관련 사업) •여성기업인 창업 지원 •여성농업인단체 관련 업무 •여성농업인단체 활동 지원 •결혼이민여성 정착지원 농업교육 지원
여성 복지 업무	2명 (또는 3명)	5급 1 7급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농업인 건강검진 관한 사항 •고령여성농업인 생산적 복지 관한 사항 •농촌보육여건 개선 관한 사항 •여성농업인 문화여건개선 관한 사항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에 관한 사항

제 4 장

여성농업인 전담부서 목표 및 과제

1. 여성농업인 전담부서의 목표



2. 여성농업인 전담부서의 과제

2.1. 성평등 농정 실현

□ 영농현장 및 농촌지역 성평등문화 정착

- 여성농업인의 삶을 바꾸는 현장밀착형 여성농업인 정책 실현의 기초에는 영농현장 및 농촌지역의 성평등문화 정착이 선결과제로 되어야 함.
- 가부장적인 유교문화, 체면이 앞서는 전통적인 공동체 사회 특징이 잔존하는 농촌지역 내 성희롱·성폭력, 가정폭력은 음성적으로 만연하게 퍼져 있음.
 - 성희롱·성폭력은 엄연한 범죄이며, 뿌리깊은 여성차별의식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인식시키고 예방교육을 시키는 것이 중요
- 대부분의 농업정책은 성평등 가치가 실질적으로 내재화되어 있지 않아 농업현장과 농촌사회에서 여성농업인의 낮은 직업적 지위, 성별임금격차, 비정규직의 여성화, 저출산 문제, 성희롱 및 성폭행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와 같은 고질적인 농촌의 성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평등 가치가 농촌사회 전반에 확산되어야 하며 ‘성평등 농정’이 구축될 필요가 있음.
- 여성가족부의 ‘해바라기센터’에서 성폭력·가정폭력 등 폭력 피해자에 대한 통합지원을 담당하고 있으나 읍·면지역에는 센터가 부족한 실정이며, 여성농업인이 겪는 문제는 다른 양상이므로, 이 센터에서 지원하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있음.

- 여성농업인 전담부서는 농업정책을 성평등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총괄·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함으로써 농식품부 정책의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에 기여할 것임.

<참고자료>

해바라기센터

-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을 위해 여성가족부와 자치단체, 경찰청, 운영기관이 협업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
-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피해자 등에 대하여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 수사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가 폭력피해로 인한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2차 피해를 방지
-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과 지적장애인에 대하여 의학적·심리적 진단과 평가 및 치료, 사건조사, 법률지원, 사회적 지원, 지지체계로서의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상담 서비스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
-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 피해상담, 치료, 그 밖에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
- 2017년 기준 38개소가 운영 중이며, 위기지원 16개소, 아동·청소년 8개소, 통합이 14개소

2.2.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직업인으로서 인정, 자아 성취감 및 자긍심 고취

- 공동경영주 지위와 권리 인정 방안
 - 우수사례 홍보 및 시상

- 공동경영주 실천농가 및 가족경영협약 농가에 정책적 인센티브 부여: 정부보조금 사업 선정평가 항목에 공동경영주 실천농가 및 가족경영협약 농가 가산점 부여 등
- 공동경영주 실천 및 가족경영협약 농가의 경영성과에 대한 실증분석 및 사례 홍보

○ 기념일, 주간 관련 기념행사 개최

- ‘여성농업인의 날’ 제정
- 영농활동 모범 표창, 다문화 공연, 전시회, 콘테스트, 세미나, 토론회 등의 기념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

<일본 사례>

- 농업발전 담당자로서 여성농업인의 지혜/기술/경험 가치에 대한 홍보 및 표창
- 일하기 쉬운 환경정비, 경영체 능력발휘 활약상 사례발표
- 젊은 여성농업인 아이디어 발굴 콘테스트 개최 등

○ 여성농업인 자격증 지원

- 운전면허, 드론, 복지, 리더십 등 여성농업인 관심 분야 자격획득을 위한 지원
- 유기농업사 등 농업생산 관련 자격증 지원

○ 민간 여성농업인 조직 육성 및 지원

- 교육 및 도농교육 등 여성농업인단체의 관심 사업 지원 강화
- 여성농어업인단체 교육, 상담, 정보교류 등 활동지원
- 4차 산업혁명시대 빅데이터 정보 활용능력, 농산물 마케팅·노무·회계 등 경영 및 유통관리 교육지원 등으로 새로운 농업환경에 대응한 역량 강화

<참고자료>**이탈리아 여성농업인단체, 농업연맹총본부**

(Confederazione italiana agricoltori: CIA, <http://www.ciatorino.it/>)

- CIA는 소규모 농업인 및 농기업체 대표 위주 90만명이 가입 활동 중인 농업조직으로 1977년 1977년 Cic - Confederazione Italiana Coltivatori로 설립되었으며, 1955년 농민 연합 (National Association of Peasants)에서 파생되어 1992년에는 Cia - Italy Confederation of Farmers가 됨.
- 이탈리아 Cia-Farmers는 로마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약 5천개의 이탈리아 지방 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COPA(유럽 연합 농산물 전문 위원회) 및 WTO (세계 농업인기구)의 회원
- 퇴직 ANP 전국협회 약 40만, 농업에 종사하는 약 3만7천명의 젊은이(Agia) "Women in the Field"에 소속된 1만 명의 여성기업가가 있으며, 약 4,500개의 관련 농장, 유기농 분야(Anabio) 약 9,500개의 농기업, "La Spesa in Campagna"와 관련된 직접 판매를 하는 약 5,000개의 농기업이 활동하고 있음
- CIA 조직 내에 "WOMEN WORKERS IN THE FIELD"가 있으며 기업가 및 공무원 그룹을 통해 여성 기업가 정신을 증진함. 이는 지속 가능한 농촌 개발을 위한 핵심 요소인 농업 분야의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와 그에 따른 입법을 적응시키는 데 효과적임. 기업가와 공무원의 활성화 그룹을 통해 홍보, 여성의 네트워크, 어시스트 모델이나 제휴 기업가의 양식을 지원하고 여성 기업가 정신을 증진하고 기업가 정신, 전문성과 농촌 지역에서 여성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추진
- Donne in Campo는 토리노 주 지방에서 농업 기업의 직접 판매 활동을 촉진하고 여성 기업가 정신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함. 여성농업활동과 관련된 문제 해결 사업 및 관련 지역, 국가 및 유럽 프로젝트에 참여함. 비즈니스, 경제 및 사회 분야의 여성 단체와의 계약 및 파트너십을 개발(<http://www.ciatorino.it/donne-in-campo.html>)
- 주요 사업은 청년농업인과 기존 고령농업인과의 멘토-멘티사업, 여성농업인을 위한 생산농산물 활용 케이터링(catering)사업 등

□ 경영 능력 향상, 여성 CEO 및 리더 육성

- 여성농업인 수요에 상응하는 맞춤형 교육과 훈련으로 전문성 제고
 - 리더십, 경영능력, 정보화, 사회복지, 마케팅, 전통음식 등 교육프로그램 다양화 및 단계별 교육프로그램 개발
 - 여성농업인 리더 대상 의사소통 및 프레젠테이션 향상 교육 실시, 선진지 해외연수 추진
 - 교육프로그램 개발, 자격증 제도 연계방안, 체계적 교육법 등의 심의기관으로써 「여성농업인 교육심의기구」 설치·운영
 - 농촌 노인여성 케어, 다문화자녀 돌봄 등 농촌형 복지 전문인 교육지원
 - 후계여성농업인을 위한 단계별 영농교육 지원 강화
 - 청년여성농업인과 여성경영주 대상 소득향상 교육지원

- 신규여성농업인을 위한 여성농업인인턴제 도입
 - 인턴농장에 대한 양성평등교육과 성희롱 및 성폭력 등 폭력예방교육 사전 실시 및 농장의 안전성 사전 점검
 -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 매뉴얼 보급
 - 안전한 인턴 숙소 확보 지원

- 후계인력 확보 및 육성을 위한 청년여성농업인 육성 프로젝트
 - 귀농·귀촌자와 청년농업인 유입 확대를 위한 농식품부의 주거지원 프로젝트 ‘청년농촌보금자리사업’과 연계 추진
 - 청년여성농업인 가구에 주거지원 우선순위 인센티브 부여 등 정책적 인센티브 부여 방안 검토

<참고자료>

청년농촌보급자리 사업

- 귀농귀촌 청년가구의 주거·보육 부담 완화, 문화·여가 수요 해소를 통해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고, 농촌의 지속가능성 제고
- 보육·문화 인프라가 복합된 공공임대주택단지 4개소 조성
 - (주거 지원) 귀농귀촌하는 신혼부부와 가구주 연령 40세 미만의 양육 가정을 위한 단독주택형 임대주택 단지(개소당 30가구) 조성
 - * 임대기간은 5~10년, 임대료는 단지의 유지관리비를 충당하는 수준에서 최소한으로 설정
 - (보육 지원) 주거단지 내 영유아 놀이 활동, 육아 품앗이, 부모 교육 등이 가능한 공동보육시설 설치
- (사업 규모) 개소당 총사업비 80.25억원(국비 50%, 지방비 50%)을 투입하여 2년간('19~'20, 1년차 40%, 2년차 60%) 4개소를 시범 조성

- 여성마을이장협의회 운영 및 지원
 - 전국 단위 협의회 운영 및 지원
 - 우수사례집 발간
- 농기업 여성 CEO 협의회 운영 및 지원
 - 전국 단위 협의회 운영 및 지원
 - 우수사례집 발간
- 농업법인 등 농관련 기업에 여성농업인(여성결혼이민자 포함) 고용 촉진 및 확대 지원
 - 적극적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 AA) 제도개선 추진, 여성 고용 목표제 도입 추진
 - 정부보조금 사업 선정항목 등에 여성농업인 고용 비율 항목 포함 추진

- 기업 대상 컨설팅 제공과 CEO 인사담당자 교육, 성평등 임금·채용 가이드라인 보급 확산
- 여성농업인의 농업법인 경영성과 등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대한 실증 분석 및 사례 홍보
- 우수사례 발굴

2.3. 여성농업인의 노동여건 개선

□ 과중한 농업노동 및 가사노동 부담 경감 대책

- 지역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한 체계적인 영농기술 및 농관련 창업교육
 - 영농기술, 농기계 조작법, 경리 및 회계 등 경영교육, 창업교육, 정보화 교육 등
 - 농관련사업 창업정보 제공, 농관련사업 창업기술 상담, 산학협동 제공 등
- 영농상담, 창업상담 등 여성농업인 애로사항 처리를 위한 「콜센터」 운영
 - 신규 여성농업인 상담, 기술 및 영농지도 등의 상담
 - 타부서 및 타부처와 연계 상담
 - 상담내용의 데이터베이스화로 맞춤형 상담
- 농촌형 보육 지원 사업
 - 공동육아, 보육도우미 등 농촌형 보육지원 사업 발굴 및 추진
 - 여성가족부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사업’이나 지자체 자체 사업 등과 연계하여 공동 보육 프로그램이 활발히 운영되도록 연계·협력
 - 탁아기능을 구비한 농업교육장, 농산물가공 및 판매시설 등 정비

○ 마을공동급식사업 확대

- 여성농업인 주도 사회적 기업(반찬사업, 공동급식사업, 농가식당 등)과 연계를 추진하여 가사노동의 사회화 및 농촌형 일자리 창출에 기여
- 하우스밀집지역, 작목반 작업장 등에 밥차 운영 등 지역별 영농형태별 특성에 맞는 공동급식사업의 유연화 및 다변화 추진

2.4 여성농업인의 소득원 창출

□ 청년여성농업인의 맞춤형 일자리 창출

○ 여성농업인의 아이디어를 활용한 창업 활성화 지원

- 농촌관광, 농산물가공, 농촌체험, 농산물판매 등 관련 아이디어 공모 및 시상
-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의 창업 활성화 지원

○ 기업과 연계하여 여성의 아이디어와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사업 발굴 및 지원

- 농기계, 작업복 등 개발단계에서 여성농업인의 아이디어로 제작된 상품에 대한 지원
- 여성농업인 아이디어 상품 제작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상품 인증 및 홍보 등)

○ 여성농업기업인 등 관련 정책적 수요 조사

- 여성 CEO 현황 조사 및 데이터베이스화
-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참고자료>

일본의 '농업여자프로젝트'

- '13년부터 민·관 연례 프로젝트로 여성농업인이 일상생활이나 농업을 하면서 풍부한 지혜, 부드러운 감성적 발상과 기업의 기술·노하우·아이디어 등을 결합하여 새로운 상품 서비스 정보 개발·전파
- 여성농업인의 역량을 기업의 기술과 아이디어 등과 결합하여,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창조
- 이 프로젝트를 통해 여성농업인의 권익과 위상을 높이고 여성농업인 경영능력 발전을 함양하여 직업으로 농업을 선택하는 젊은 여성 증대 기대
- 여성농업인 참여 수: 683명, 참여기업: 35기업, 교육기관:5개

○ 농촌형 일자리 발굴

- 지역사회 전통문화 전승 관련 일자리 (농촌문화체험 해설사)
- 도농교류 관련 일자리(체험농장, 팜스테이 등)
- 농촌형 복지수요 일자리(노인돌봄사, 방과후돌봄교사, 다문화돌봄사 등)
- 여성농업인정책 코디네이터 등의 중간자 역할 관련 일자리
- 농산물 대행판매, 생필품 대행구매 등 인터넷 활용 대행서비스업 관련 일자리

○ 여성농업인 특화 판매장 마련

- 농협하나로마트 내, 로컬푸드 내 특화 판매장 개설, 홈페이지 운용
- 여성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로 구성된 꾸러미세트, 명절선물세트 개발
- 감성마케팅, 스토리텔링마케팅 교육지원

<참고자료>**중국 알리바바의 농촌 타오바오 파트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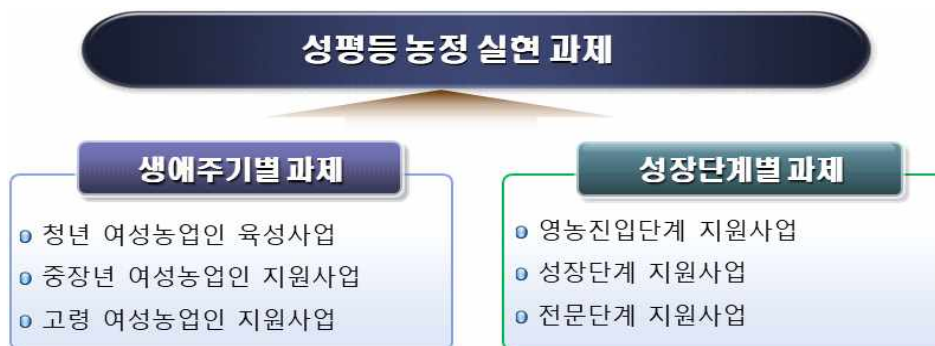
- 현금 도시에 알리바바 직원을 파견해 현금 서비스센터를 설립하고, 이곳을 통해 마을의 작은 상점 혹은 중심지에 개점한 촌급 서비스센터에 구매대행을 비롯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시스템
- 촌급 서비스센터는 알리바바에서 교육을 받은 ‘농촌 타오바오 파트너’를 배치해 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

2.5. 여성농업인 복지 향상

- 여성농업인 특화 건강검진 도입, 발생빈도가 높은 질환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기적으로 실시 비용 부담
 - 건강검진 도입을 위한 ‘여성농어업인육성법’ 개정 추진
 - ‘21년 여성농업인 특화 건강검진 도입을 목표로 기초 연구 추진: 건강검진 도입 필요성, 검진 항목, 소요 예산, 법령 제도 마련(’18.7월~’19.2월)
- 고령여성농업인을 위한 생산적 복지 실현 농장 및 법인 사업장 지원
 - 65세 이상 고령여성농업인을 고용하는 농장 및 농업법인체에 인센티브 부여(정책사업과 연계지원, 정책보조금 지원 등)
 - 생산적 복지 실현 법인 인증제
 -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 고령여성농업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
 - 공동육아나눔터, 손주돌보미 사업 등 육아 관련 일자리
 - 노인케어 등 노인복지 관련 일자리
 - 전통음식 전수 등 전통문화서비스 관련 일자리

3. 여성농업인 신규과제의 추진방안

- 여성농업인 신규과제는 성평등 농정을 실현하기 위해 여성농업인의 생애주기별, 성장단계별 정책수요에 대응하는 맞춤형 정책과제로 선정
 - 청년 여성농업인, 중장년 여성농업인, 고령 여성농업인의 정책수요에 근거한 정책과제 발굴
 - 영농진입단계, 성장단계, 전문단계별 정책수요에 근거한 정책과제 발굴



- 신설 여성농업인 전담부서는 기존 여성농업인 관련 정책사업 이외에 신규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및 추진할 필요가 있음.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신규과제를 제안하고자 함.
 - 각 신규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 및 추진 계획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임.

신규과제	영농현장 맞춤형 성희롱·성폭력 상담 및 교육 전담인력 양성
------	-------------------------------------

가. 사업배경 및 필요성

- 최근 미투운동이 사회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영농현장 및 농촌지역 대상 성희롱·성폭력 대응 및 성평등 문화 확산 관련 사업을 담당할 부서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필요하게 되었음. 즉, 영농현장 및 농촌지역 특성을 반영한 성희롱·성폭력 교육 및 상담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등과 협업을 통해 여성농업인 전담부서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농촌지역에서는 영농현장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문제에 대한 예방 및 사후 조치에 관한 사항을 상담 및 해결할 수 있는 창구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여성농업인의 활동현장에서 관련 문제를 교육하고 상담해 주는 중간자적 역할이 필요함.

나. 추진방안

- 영농현장 및 농촌지역 실정에 맞는 성희롱·성폭력 상담 및 성평등 교육을 위한 여성농업인 전문강사 육성
 - 여성농업인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 이수 후 성평등 교육 전문 강사로 육성하여, 영농현장 및 농촌지역에 적합한 성평등 교육 실현
- 영농현장 및 농촌지역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실시
 - 여성농업인과 직접 교류하는 마을이장, 여성정책 담당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근절을 위한 예방교육 확대 실시
- 성별에 따른 불평등한 사회구조와 자원배분의 불균형성을 시정하는 성평등 교육을 실시하여 여성농업인의 직업인으로서의 지위 향상에 기여

신규과제

여성농업인센터 중앙지원단 설치

가. 사업배경 및 필요성

- 여성농업인센터는 2018년 전국에 40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읍면지역에서 여성농업인을 위한 영유아보육, 농촌 아동 방과후 학습지도, 여성농업인 고충상담 및 교육·문화 활동, 기타 비정기사업(농업·농촌의 체험활동, 도농교류사업 등 운영)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경기3, 강원2, 충북2, 충남6, 전북8, 전남4, 경북1, 경남6, 제주8
- 2001년 시작된 여성농업인센터는 2006년 사업이 중앙 정부에서 지자체로 이관되면서 지자체의 낮은 사업인식도와 재정적 한계로 인해 사업이 부진한 상태로 여성농업인센터 활성화에 대한 요구가 계속 제기되어 왔음.

나. 추진방안

- 여성농업인센터 중앙지원단 「중앙여성농업인센터」를 설립하여 지역단위 여성농업인센터들을 위한 공통 프로그램 개발·보급, 여성농업인 직업역량 강화사업 추진 등 각 지역단위 여성농업인센터의 활성화 지원
 - 중앙단위 사업기획 및 관련 전문인력 육성 등의 역할을 담당할 컨트롤 타워 설치
- 「중앙여성농업인센터」의 주요 기능은 1) 사업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2) 사업프로그램 개발·보급, 3) 여성농업인센터 업무 지원 및 연계, 4)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와의 연계망 구축, 5) 지역센터의 종사자 역량 강화 지원(전문성 강화 교육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 6) 네트워크 구축 및 협의회 개최, 7) 관련 통계조사 등

신규과제	여성농업인 패널조사 및 성인지 통계 생성
------	------------------------

가. 사업배경 및 필요성

- 현행 여성농업인실태조사는 매년 조사표본이 바뀌어, 조사 대상자, 조사방법 등에서 표본의 대표성과 신뢰성 조사결과 해석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시의성 있고 현장체감형 정책추진을 위해 동일한 여성농업인 표본을 몇 년간 추적 조사하는 패널(panel)조사가 필요함.
- 농업관련 성인지통계 부족으로 성인지 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으므로 여성농업인 관련 통계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여, 통계수요자에게 통계자료 제공 서비스가 구축될 필요가 있음.

나. 추진방안

- 여성농업인 패널조사 실시 및 관련 통계자료 분석을 통한 정책과제 발굴
- 기존 농업관련 통계자료를 성인지적 관점에서 남녀농업인 통계로 구분하여, 여성농업인 관련 통계자료를 수집·가공·분석하는 플랫폼 구축 및 관련 통계 서비스 추진
- 여성농업인 관련 성인지적 통계자료집 발간 등 통계 활용도 제고

신규과제

여성농업인 연구센터 설치·운영

가. 사업배경 및 필요성

- 「여성농업인 연구센터」를 설립하여 여성농업인 관련 정책사업 실행, 현황과의 연계 강화 및 성인지적 관점에서 정책 연구 수행
 - 여성농업인의 수요조사에 근거한 정기적인 정책과제 추진
 - 총리실 산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지자체 여성정책개발원 등 벤치마킹
- 여성농업인들의 노동참여 증대에 따라 여성농업인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실태 및 현황에 근거한 정책수립의 중요성 부각
- 기존 농업관련 연구에서 성인지적 관점의 부족으로 일반적인 농업·농촌 현황과 정책방안에 대한 성인지적 정책수립에 한계
- 농촌여성 구성의 다양화 및 역할 증대에 따라 여성 농업인의 지역사회 참여 및 농업에서의 역할 또한 다양해지고 정책 수요도 증대
- 여성관련 연구기관에서 여성농업인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전남, 충남, 강원 등 지역 관련 연구기관도 년 1개 정도 연구 이외 세부적인 정책 연구는 부재
 - 농촌진흥청 내 농업자원연구소가 여성농업인 관련 연구 수행
 - 전국여성농민총연합 여성농민연구소 설치 운영(현재 소멸)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초기 여성농업인 육성계획 수립, 귀농귀촌여성 연구 등이 수행되었으나 최근 5년 이내 연구가 거의 진행되지 않음
 - 각 도 여성관련 정책 연구기관에서도 여성농업인 관련 연구실적은 미약

표 4-1. 지자체의 여성농업인 관련 연구기관 현황

기관명	현황
전북여성정책개발원	- 과거 여성농업인, 농촌다문화연구 - 현재 없어짐. 전북발전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로 축소 - 기초적인 연구인 실태조사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
전남여성플라자	- 여성어업인 관련 연구 등이 추진됨.
충남여성정책개발원	- 여성농업인 관련 연구가 연간 1개 정도 시행되고 있음.
강원여성정책연구원	- 여성어업인, 여성농업인 연구 부분적으로 수행됨.
경북여성정책개발원	- 과거 여성농업인 연구가 있었으나 최근 5년 이내 연구가 거의 진행되지 않음.

나. 추진 방안

- 예산 및 조직: 전담인력 배치(2명) 지원 센터 운영비, 연구용역비, 인건비 등 지원
- 수행업무: 단장기적 과제 수행, 중장기계획 연구, 농업노동현황, 농업인 애로사항, 지방연구원과 공동수행 등

표 4-2. 추진방안 - 제 1안, 제 2안

유형	1안) 농업관련 연구기관 내 설치	2안) 여성관련 연구기관 내 설치
명칭	한국농촌경제연구원내 여성농업인연구센터(가칭)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내 여성농업인연구센터(가칭)
인력	센터장, 연구원 2명	센터장, 연구원 2명
예산	사업비 2억(연구,심포지엄,포럼 등) 인건비 2억(3인+@)	사업비 2억 인건비 2억
장단점	농업관련 정책 연계가능성 강화 성인지적 농업정책 확대 기관내 역할 축소 우려	성인지적인 정책 연계 확대 여성정책과 연계성 확대 농업관련 분야의 취약

신규과제

여성농업인 네트워크 및 생활문화 지원

가. 사업배경 및 필요성

- 여성농업인 특히, 청년여성농업인의 성공적인 농촌 정착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지역사회 참여로 마을주민, 또래 집단과의 교류와 소속감을 얻는 것이 중요
- 여성농업인이 농업·농촌 분야에서 다양한 주제로 자율적인 활동계획을 세우고, 소모임 활동을 지원하는 방안 마련 필요

나. 추진방안

- 여성농업인의 생활문화 동호회 활동, 연극 같은 문화예술 프로젝트, 마을축제 지원 등의 여성농업인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추진
- 생활문화 동호회 활동 지원, 생활문화프로그램 운영단체 지원, 생활문화 코디네이터 육성, 소규모 문화공동체 지원 등 사업 추진
 - 생활문화 동호회 활동은 동호회 활동에 필요한 임차료와 재료비 등 활동비를 지원
 -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생활문화 코디네이터 육성과 동호회로 구성된 소규모 문화공동체 육성
 - 여성농업인의 생활문화활동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통합 생활문화 축제를 매년 개최하는 방안 추진
- 찾아가는 문화 서비스
 - 문화예술 체험 기회가 부족한 여성농업인을 위한 연중 순회형 행복 서비스로, 전국 여성농업인 일터와 지역에 찾아가 공연 제공

신규과제

여성농업인 코디네이터 육성 및 지원

가. 사업배경 및 필요성

- 여성농업인의 고령화 진전과 일과 가정 병립으로 인한 시간 부족 등으로 여성농업인 관련 정책 인지 및 활용도가 미약한 편임. 또한 여성농업인 정책 담당부서가 없는 지자체가 많아 중앙정부의 정책이 지자체까지 전달되는 과정에서 연속성과 지속성이 떨어지고 있음. 따라서 여성농업인 정책 대상자의 지원서류 접수 및 관련 사업 설명을 해주고 컨설팅해줄 수 있는 중간자 역할이 필요
- 여성농업인 정책과 현장을 잇는 가교 역할 및 변화의 촉진자로서 여성농업인 코디네이터 역할이 요구되며 여성농업인 참여를 통한 실현 가능한 공감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여성농업인 정책 코디네이터를 육성·지원할 필요가 있음. 정책 코디네이터를 통해 여성농업인 정책을 현장과 문제해결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음.
- 대부분의 지자체에 여성농업인 전담조직이 없고, 여성농업인 특화 생산 및 가공기술 이외의 마케팅, 유통, 비즈니스 분야의 전문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며, 청년여성농업인의 안정적 농업 정착을 위한 기초단위(시군단위) 중간지원체계 구축의 모색이 필요한 상황임. 농업기술센터의 역량강화를 통한 여성농업인 정책 지원체계 구축을 제시하고자 함.

나. 추진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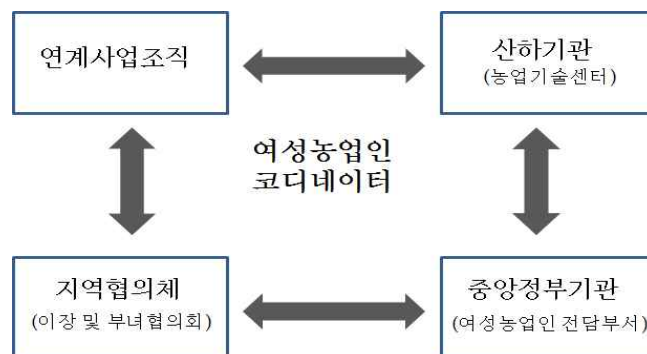
- 자격요건
 - 만 19세 이상 만 49세 미만인 여성농업인

- 근무내용: 여성농업인 공감 정책을 위한 각종 활동 수행
 - 여성농업인 지원 관련 업무
 - 여성농업인 심층상담과 방문상담 등의 여성농업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여성농업인 문제 발굴 및 조사, 여성농업인정책 개선방안 건의, 여성농업인 단체와의 교류활동 등
 - 여성농업인정책 담당자 및 여성농업인단체 등 민·관 협치 활동의 소통을 위한 업무지원(각종 회의, 의견 수렴 등)

- 여성농업인정책의 체감 및 확대를 위하여 코디네이터의 개념정립 및 역량 분석을 통한 코디네이터 교육프로그램(기본과정) 개발 필요

- 다양한 영역의 프로그램 적용 및 평가보완을 통해 현장 지원인력 양성을 위한 여성농업인 코디네이터 전문가과정 교육프로그램 운영

- 여성농업인 코디네이터 전문가과정 교육프로그램 이수자들을 대상으로 현장 적용능력을 분석하고 코디네이터에 대한 제도적 지원방안 모색



<참고자료>

농장코디네이터

- 농장코디네이터 교육은 서울산업진흥원(SBA)이 농촌의 구인난과 도시의 구직난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임. 도심형 농업 전문가를 육성하고 교육과 실습을 통해 농업 현장의 업무를 체득, 전문성을 갖춰 성공적인 귀농 귀촌 또는 농업창업과 연계되도록 지원함
- 농장코디네이터 활성화를 통해 농촌의 고질적인 일손부족을 돕고 장기적 경기 침체와 제조업의 불황으로 발생하는 일자리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음
- 농장코디네이터는 도시와 농촌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구직자인 도시인과 구인자인 농장주의 소통을 돕고 갈등을 해결, 중재함. 여기서 나아가 농장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도우미이며, 귀농 귀촌을 돕고 농촌의 부족한 일손도 채워주고 소득도 올리는 전문가임

6차산업 코디네이터

- 6차산업 코디네이터는 농촌자원의 생산, 가공, 서비스를 융·복합해 농업 6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문 인력으로,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 공감 및 확산을 위해 육성·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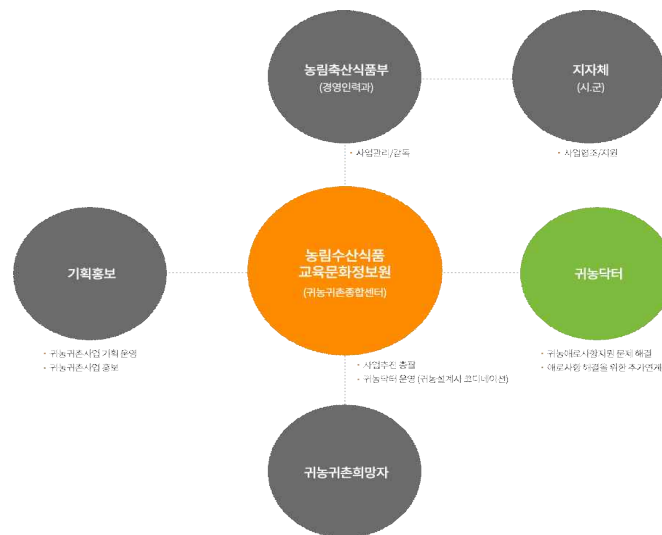
푸드코디네이터

- 푸드코디네이터는 유기농 식재료를 직접 재배해보면서 영양학적 이해와 특성을 관찰하는 에코가드닝 수업과 레스토랑 조리실무, 타켓 분석을 통해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는 레스토랑 메뉴개발 등 3단계 교육과정을 거쳐 푸드코디네이터 자격증 취득

<참고자료>

귀농닥터

- (정의)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귀농 및 귀촌의 안정적인 진입과 정착을 도와주고, 정착 시 애로사항이나 귀농의 문제해결 조력자 또는 각 분야별 전문도우미 일컬음
- (목적) 현장밀착형 귀농닥터를 통해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귀농에 필요한 사전 지식·정보 전달 및 진입단계/분야별 애로사항(문제점)을 해결하여 안정적인 귀농·귀촌 정착 지원
- (과정) 귀농·귀촌을 했거나 준비중인 사람이 귀농·귀촌종합센터에 신청하면 애로사항에 따라 적절한 멘토를 물색해 매칭해주며, 또한 본인이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에 가서 멘토를 검색해 지정할수도 있음. 신청인 1인당 5회의 멘토링을 받을 수 있으며 전액 무료
- 사업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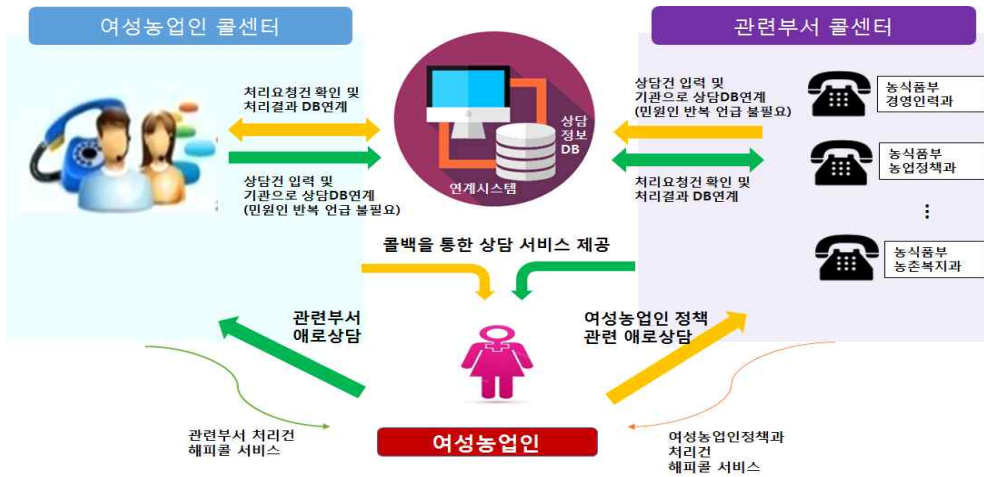
가. 사업배경 및 필요성

- 농촌지역과 영농현장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고충을 상담하고 성폭력문제를 신고할 수 있는 채널 부족, 여성농업인이 겪는 차별대우, 성폭력 문화의 양상은 일반여성보다 다를 수 있으므로 성폭력 관련 여성농업인 전담 상담채널 필요함. 여성가족부 관련 상담센터는 모든 면에 설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여성농업인의 상담 접근성 향상을 위한 콜센터 운영 필요
- 영농기술 및 창업 관련 사항, 세금 및 서류 작성 등의 여성농업인이 농업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손쉽게 상담할 수 있는 채널 부족
 - 특히, 신규여성농업인의 영농기술 및 창업 등에 관한 상담과 각종 여성농업인 애로사항 등을 상담할 수 있는 접근성이 높고 신뢰성 있는 상담창구 필요
- 농가유형이 다양화되고 여러 가지 정책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농업인 정책정보에 대한 궁금증이나 문의사항에 대해 단순 상담에 그치지 않고, 개별 농업인 맞춤형 전문가 심층상담 지원 서비스 수요 증가

나. 추진방안

-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여성농업인지원단을 콜센터 상담자로 지정하여 맞춤형 상담 서비스 제공
- 콜백서비스를 통해 상담 만족도를 파악하고, 필요시 관련부서 콜센터와 연계하여 추가적인 상담을 실시하는 등 여성농업인의 애로사항이 해결될 때까지 지원해주는 상담자 만족 서비스 제공

○ 상담내용을 유형화하여 여성농업인 애로사항에 관한 데이터베이스화 및 정책수요조사에 반영하는 시스템 구축



<참고자료>

농업인행복콜센터(1522-5000)>

-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업인행복콜센터」는 고령농업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분야의 고충을 접수·안내하고 특히, 지역 농·축협에 신청한 돌봄대상자를 대상으로 말벗서비스 등의 정서적 위로와 돌봄도우미 방문을 통한 생활불편을 해소하는 등 맞춤형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노후화 된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전담조직인 「농촌현장지원단」을 설치해 운영중에 있음.
- 돌봄대상자는 70세 이상 농업인(조합원) 중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고령농업인·홀몸어르신·취약농업인 등 중에서 선정하며, 돌봄도우미는 돌봄대상자의 요청을 받고 가정을 방문하여 생활의 불편을 해소해 주는 자원봉사자 또는 수리업체를 말함.
- 농협 조합원 한가구가 농업인행복콜센터의 돌봄서비스에 연간 2만 1719원을 지불할 의사가 있어, 연간 경제적 가치는 194억원, 향후 5년간 경제적 가치는 889억 1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협동조합경영연구소)

신규과제

여성농업인 공감·소통채널 구축·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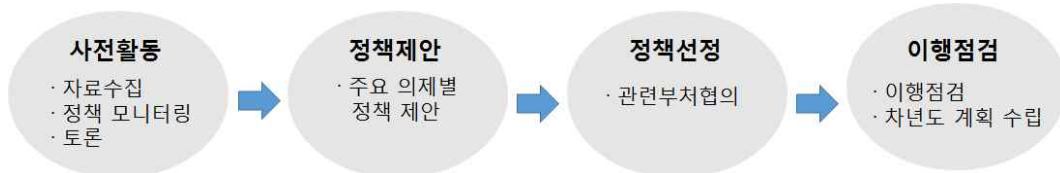
가. 사업배경 및 필요성

- 여성농업인 정책에 대한 인지도 및 활용도가 낮은 상황에서 여성농업인들이 현장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수요 증가
- 최근 SNS, 블로그 등의 쌍방향 소통채널 다양화로 여성농업인의 정책수요 및 의견개진이 비교적 용이함. 이에 따라 여성농업인이 직접 참여하는 정책과제 제안 및 소통 플랫폼 구축·운영을 통해 현장체감형 정책 실현 가능성이 확대됨

나. 추진방안

- 여성농업인이 원하는 성평등 및 농업정책 과제를 당사자가 직접 제기하고 논의·소통하는 ‘여성농업인 미래 프로젝트’ 추진
 - 주요 여성농업인 이슈 조사와 의제 도출 등 이행로드맵 마련
 - 기업 연계 프로젝트 추진, 일본의 ‘농업여자프로젝트’ 벤치마킹
- 여성농업인 참여 플랫폼 운영을 위해 지역별·의제별 여성농업인 모니터링단 모집 구성 및 출범·운영하여, 여성농업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별·의제별 커뮤니티, 토론장 운영 진행
- 정책 아이디어 공모 등의 여성농업인들의 정책 제안체계 마련
 - 정책 아이디어 공모를 통한 정책과제 발굴
 - 이슈별 자료수집, 정책모니터링 활동 등을 통해 정책 제안
 - 분기별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는 차년도 계획 수립에 반영

<정책 제안 및 개선>



- 매년 현장 중심 여성농업인 정책 우수사례 선정하여 표창 및 홍보
 - 여성농업인 정책과제 중 여성농업인과 지자체 공무원, 관계자들의 만족도와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우수사례로 선정

신규과제	여성농업인의 대표성 제고
------	---------------

가. 사업배경 및 필요성

- 여성농업인의 농업노동 기여율은 높으나, 농가의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 비중은 38% 수준으로 직업적 지위는 여전히 낮은 수준
 - ‘2013년 여성농업인실태조사’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 비중 42%, 여성 경영주의 63%가 60대 이상
- 여성농업인은 농업법인 등 노동시장 신규진입 뿐만 아니라 임신·출산 등으로 경력유지가 어려우며, 특히 조직 내 유리천장 등으로 농업법인과 농협 등의 민간기관의 여성 임원비율이 매우 저조
- 그간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한 결과, 공공부문은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민간부문에 대한 정책은 부족한 실정
 - 지역농협 대의원회 여성비율 18.9%, 지역농협 이사회 여성비율 10% (2018년 12월 기준)

나. 추진방안

- 농업경영체(농가, 농업법인)의 이행력 제고를 위한 제도 마련 및 강화
 - 여성 공동경영주 비율 조사·발표('19.10월), 농업법인 임원의 성별 현황 공개 확대 추진
 - 적극적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 AA) 제도개선 추진
- 농업경영체의 자발적 개선을 위한 다양한 유인기제 마련
 - 정부보조금 사업 선정항목 등에 여성대표성 항목 추진
 - 농가 및 농업법인 경영성과 등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대한 실증사례 확산
 - 대표성 제고 이행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인센티브 제고
- 선도적 농가 및 농업법인을 발굴하고, 대표성 제고에 의지 있는 농업경영체에 대한 지원 확대
 - 여성 경영주 목표제 도입 추진
 - 기업 대상 컨설팅 제공과 CEO 인사담당자 교육, 성평등 임금·채용 가이드라인 보급 확산
- 관리직 진출이 가능한 여성농업인 후보군 양성
 - 중간·고위관리자를 위한 여성농업인 교육과정 개발
 - 양성평등 현장교육 확대를 위해 강사 양성, 지역거점기관 확대
- 성평등 문화의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캠페인 추진
 - '일하고 싶은 성평등 농장 또는 마을' 선정 발표
 - 여성농업인단체 등과 협력, 성평등 문화를 위한 인식개선 캠페인 등

신규과제

여성농업인 생산 우수농산물 마케팅 지원

가. 사업배경 및 필요성

- 여성농업인 창업의 가장 큰 어려움은 판매처 확보, 마케팅 및 제품 홍보 부족 문제 등으로 나타났음.
- 소규모 영세업체의 판매처 확보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여성농업인 공동 브랜드를 개발하여 공동 판매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나. 추진방안

- 여성농업인이 생산하는 우수 농산물 및 농식품 가공품들의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 그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농업박람회, 농협하나로마트, 로컬푸드매장 등에 ‘여성농업인 생산 우수 농산물’ 코너 개설 지원
 - 여성농업인 판매 수수료 등 감면 및 지원
- 여성농업인의 소득 창출 지원을 위해 인터넷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 판매 확대 지원
- 여성농업인의 정성과 손맛 그리고 여성농업인 현장사례(새로운 기술, 친환경농업, 기타 특출한 내용 등)를 접목시킨 스토리마케팅 등의 감성마케팅 전략 활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마련
- 여성농업인 생산 선물세트, 꾸러미 등의 상품 아이디어 공모 등을 통해 제품제작 및 홍보 지원하며, 이러한 사업은 기업 연계 프로젝트로 추진할 수 있음.

고용노동부의 '경력단절여성 고용 관련 세제혜택'

- 사업목적: 기업의 고용부담 완화, 경력단절여성 고용 촉진
- 사업내용: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한 기업 및 당사자에 대한 세제 혜택

종류(조세특례제한법 조항)	수혜자	수혜내용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기업 세액공제(법 제29조의3)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한 중소·중견기업	2년간 지급 인건비의 30% 상당액 세액공제(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법 제30조)	동일한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한 경력단절여성 등	3년간 근로소득세의 70% 감면(과세 기간별 150만원 한도)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법 제30조의4)	고용이 증가한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 증가 상당액의 100% 세액공제(2년간)

※ 관련법상 '경력단절여성'의 범위(정의) : 해당 기업에서 1년이상 근무 중 임신·출산·육아의 사유로 퇴직하고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에 있는 여성(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

- 신청방법 등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26조의3, 동법시행령제27조, 동법시행령제27조의4 참조

신규과제

고령여성농업인의 생산적 복지 실현 농업법인 지원

가. 사업배경 및 필요성

- 여성농업인의 고령화 심화로 고령여성농업인을 위한 생산적 복지 관심 급증
- 일하면서 즐거움을 찾는 생산적 복지 실현과 동시에 고령여성농업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일자리 창출 수요 증가

나. 추진방안

- 65세 이상 고령여성농업인을 고용하는 농장 및 농업법인체 지원 방안
 - 세제혜택, 정책사업과 연계지원, 정책보조금 지원 등의 정책적 인센티브 부여 방안
 - 생산적 복지 실현 사업장 인증제
- 고령여성농업인 참여 사회적기업 지원
- 해당업체 생산품에 대한 판매전략 지원
-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참고자료>

할머니들의 영농조합 '백석올미영농조합'

- 마을의 전통 한과기술을 이용하여 전국에 매실한과를 판매하고 있는 협동조합
- 한과뿐만 아니라 매실원액, 매실짱아찌 등 상품 판매, 농촌체험사업
- 노인마을 전체를 협동조합으로 만든 사례
- 평균 연령 75세 할머니들이 운영하는 영농조합으로 연간 매출 7억원
- 할머니들을 위한 한글반, 컴퓨터반, 서예반 등 겨울철 동아리활동



고용노동부의 중장년 고용촉진 지원 정책

사업	대상	개요
고용연장지원금	60세 이상인 자를 다수 고용한 사업주 등	고령자를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여 장년의 고용안정 및 고용유지 도모
임금피크제 지원금	55세이상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 등	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게 감소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장년 근로자의 고용연장 및 기업의 임금부담 완화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만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한 우선 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 중견기업 월 40만원 지원(3개월 단위로 최대 1년간 지원)
사회공헌활동 지원	(참여자) 만50세 이상 퇴직전문인력, (참여기관) 비영리단체,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 등	퇴직인력의 사회적 기업 및 비영리단체 등에서의 사회공헌 활동 지원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	만40세 이상의 중장년	퇴직(예정)하는 40세 이상 중장년층에게 재취업 및 창업, 생애설계지원, 사회참여 기회제공 등의 종합전직지원서비스 제공
생애경력설계서비스	만40세 이상의 중장년	중장년기 경력점검을 통한 경력 자산발견 및 생애설계

신규과제

여성농업인 적합 자격증 개설

가. 사업배경 및 필요성

- 여성농업인에게 적합한 자격증을 개설하여 일자리를 발굴하고,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에 기여
- 청년여성농업인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관련 직업에 대한 자긍심 고취 및 신뢰도 향상

나. 추진방안

- 여성농업인의 6차산업 참여 활성화 및 고객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해 ‘농촌 힐링관리사’ 개설
- 농촌지역 전통식품제조 및 비법을 전수하고 계승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전통식품 관리사 자격증’ 도입
- 자격증 도입을 위해 농식품부가 민간기관을 주관기관으로 선정
 - 주관기관은 자격증 취득 시험에 필요한 과목 선정, 평가 방식 및 시험계획 마련, 교육책자 제작 등을 담당, 자격증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 거쳐 농식품부 장관에게 민간자격의 하나로 등록

<참고자료>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혼인/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및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
- (예비) 창업자 대상 초기창업상담, 창업직업교육훈련 운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기부),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중기부) 등 창업유관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서비스 연계 지원
- ※ 연계사업: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사업(중기부, 여성가족부 새일센터 이용자 대상으로 가점 지원) 등
- 새일여성인턴십은 경력단절여성이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직무실습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로, 기업은 새일센터가 소개한 직무실습자 급여 일부를 지원받고 취업으로 연결되면 당사자와 기업은 취업장려금 각각 60만원을 추가로 받음
- 2008년 6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정
 -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새일센터를 지정, 운영
 - 여가부는 직업훈련 및 인턴사업, 고용부는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을 위주로 지원
- 2018년 12월 새일센터 156개소 운영 중



신규과제

현장밀착형 노동여건개선사업

가. 사업배경 및 필요성

- 관련 선행연구 및 실태조사에서 여성농업인의 다양한 활동에 가장 큰 걸림돌은 육아, 보육, 집안일 등의 가사노동인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여성농업인의 경영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선결조건은 가사노동의 사회화 등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사업 확대일 것임.
- 여성농업인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장소 또는 쉴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수요가 높으나 마을회관 등의 농촌공동공간은 경로당, 체험사업장 등으로 이용되고 있어 여성농업인들의 휴식공간으로서 활용되기 어려운 점이 있음

나. 추진방안

- 마을공동급식사업 확대 및 내실화를 위해서는 현재 농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업이 추진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반찬사업, 농가식당, 공동급식 등의 사업아이템을 포함한 여성농업인 사회적기업사업 유형으로 공모 및 선정하여, 마을공동급식사업을 보다 내실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원예단지, 작목반 작업장 등을 대상으로 ‘마을밥차’ 서비스 시범운영
 - 자부담 일부, 중앙정부와 지자체 보조
- 마을 공동 및 유휴공간을 활용한 여성농업인 휴식공간 마련
 - 모든 읍면단위에 있는 공공시설인 보건소의 일부공간을 여성농업인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와 협의

- 휴식공간은 찜질이나 물리치료 등을 할 수 있는 건강관리 기능, 여성농업인들이 모여서 소통할 수 있는 사랑방 기능 수행

<참고자료>

찾아가는 경로식당 ‘사랑의 밥차’

- ‘찾아가는 경로식당 사랑의 나눔 밥차’ 사업은 2016년부터 지역 내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에게 균형 잡힌 영양 식단으로 식사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전남 보성군에서 추진하고 있음.
- 밥차 운영에 관한 사업비는 보성군에서 지원하고 보성군노인복지관이 사업을 위탁 운영하고 있음.
- 보성군은 2016년부터 지금까지 94개 경로당에서 4700명에게 식사 지원을 이어 오고 있으며, 2018년에는 30개 경로당을 선정해 12월까지 주 1회 경로당으로 직접 찾아감.
- 사랑의 밥차는 1톤 트럭을 개조해 취사와 조리가 가능하도록 제작했으며, 한 번에 최대 150인분이 식사 제공이 가능함.



<참고자료>

고용노동부의 ‘대체인력 채용지원서비스’

- 사업목적: 출산휴가·육아휴직 등의 사유로 생긴 업무공백에 적합한 대체인력을 추천·알선해주며, 대체인력을 채용한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여 사업주의 부담 완화 및 사내눈치 없는 육아휴직 등의 장려
- 지원1: 대체인력 채용지원서비스 제공
 -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산업재해 등으로 인한 업무공백이 예상될 때, 대체인력을 미리 확보하여 기업에 ‘맞춤인재를 추천 및 알선’해주는 서비스
 - 운영기관 : 고용센터, 새일센터, 민간 대체인력뱅크, 지자체일자리센터 등
- ※민간 대체인력뱅크:기업이 적시에 인력을 총원할 수 있도록 마련한 대체인력풀로서, 채용지원 서비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민간 취업지원기관 두 곳에서 대체인력뱅크를 운영 중 (㈜커리어넷: 수도권 담당, (주)스카우트: 지방권 담당)
- ① 직종별 대체인력 POOL을 구축하고 대체인력이 필요한 기업에 집중 알선
- ② 대체인력의 빠른 업무적응을 위한 맞춤형 직무교육 제공
- 지원2: 대체인력 채용 지원금 지원
 -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하고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

종류	지원내용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 1인당 월 60만원, 대규모기업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시간선택제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금	대체인력 인건비 80%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60만원, 대규모기업 30만원)
산재근로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금 (20인 미만 사업장)	대체인력 인건비 50% 지원 (월 60만원 한도, 최대 6개월)

제 5 장

일본 여성농업인 정책

1. 일본 여성농업인 전담부서

- 일본 여성농업인 전담부서는 농림수산업 경영국 취농여성과 여성활력추진실로 실장포함 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 10억원으로 교육·세미나, 환경개선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경영 지원반 4명) 농림수산업에 여성의 능력 활용 촉진 사무와 농림수산업의 소속에 관한 연락·조정 관련 사항, 여성의 농업경영 참여 추진, 경영 발전 지원 등에 관한 기획·조정
 - 제4차 남녀공동참여기본계획('16~'20년)에 의거. 내각부·지자체와 협업, 농촌양성평등 추진
 - 여성농업인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정비(식량 농업·농촌 기본계획 수립, '15.3월)
- 일본 여성농업인 정책의 목표는 여성이 바꾸는 미래의 농업 추진 사업, 여성에게 매력있는 직업으로 농업을 실현하고자 함.

표 5-1. 일본의 여성농업인 정책

여성 농업 지역 리더 육성 지원	여성농업인 역량 향상 지원
<p>[과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핵심 농업 종사자의 약 40%를 차지하는 여성은 지역농협 활성화와 6차 산업화의 역군으로서 중요한 역할 •그러나 여성 경영자, 농업위원회들과 농협 임원 등 리더 계층의 여성비율은 10% 미만 	<p>[과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의 성장 산업화를 실현하려면 여성의 역할을 경영에 활용하는 것이 중요 •그러나, 농촌에서는 성별에 따른 고정적인 역할 분담의식이 뚜렷하며, 일과 가정의 균형 인식에 관심 낮은 편임.
<p>[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영 능력 향상 및 지역 농업의 발전을 위한 문제의식 등을 가진 여성농업인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농촌 공동체 리더십 능력의 향상 - 커뮤니티 만들기 선지지의 연수·조사 - 커뮤니티의 가치를 높이는 브랜딩 방법의 습득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실천형 교육 실시 	<p>[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의 활약 추진을 위한 농업 경영체의 인재 육성 프로그램, 일과 생활의 균형 제도, 직장·노동 환경 개선을 내용으로 한 연수 교재 개발 •경영자·관리자를 위한 세미나 개최 등을 실시하고, 여성농업인 롤 모델 경영체 육성

2. 일본 여성농업인 정책 사례

2.1 「농업 여자프로젝트」

- 여성농업인의 역량을 기업의 기술과 아이디어 등과 결합하여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창조
- 이 프로젝트를 통해 여성농업인의 권익과 위상을 높이고 여성농업인 경영 능력 발전을 함양하여, 직업으로 농업을 선택하는 젊은 여성 증대 기대
- 「농업 여자프로젝트」의 주요 성과는 여성농업인들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상품을 개발하여, 여성농업인의 노동여건 개선에 기여하였음.

표 5-2. 「농업 여자프로젝트」 주요 성과

다이하츠 공업	이세키농기	샤프
여성농업인 친화적 경트럭 개발	농업 여자 트랙터 ‘하라고 뽀띠’ 개발	진흙 얼룩의 고민을 해소하는 세탁기 개발
		
와코루	고세	콤비 위즈
농사일에 편안한 속돛 4종 개발	자외선 차단 등 여성농업인 대상 메이크업 세미나	어린이 농사 체험 프로그램 개발



3. 시사점

- 일본 농림수산업성 경영국 부서에서 여성경영참여 활성화를 추진함으로써 일본 여성농업인 정책은 여성농업인의 직업인으로서 지위향상과 경영인력 육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 한국의 여성농업인 전담부서는 경영인력사업 뿐만 아니라 여성농업인 관련 복지업무 등도 전담부서에서 관할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또한 농업 생산활동 뿐만 아니라 6차 산업 등 농외소득활동 지원 사업도 포함되어야 할 것임.
 - 전담부서의 업무내용 수립에 있어서 여성의 '농업참여'에 초점을 둘 것인지 혹은 '여성'에 초점을 둘 것인지를 고려해야 할 것임.

- 일본 여성농업인의 고령화도 심각한 문제이며, 우리의 경우도 현재 여성농업인의 고령화로 향후 여성농업인이 급격히 축소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여성후계농업인력 육성이 주요 여성농업인 정책과제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일본의 경우 여성이 경영에 참여하는 농가의 판매액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여성농업인의 활동이 농산물 판매, 가공 및 민박 등 다양화 되고 있음. 우리도 여성농업인의 농업경영 참여에 따른 수익성 향상 효과를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계측할 필요가 있음. 즉, 가능한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여성농업인 활동의 효과를 수치로 계측하여, 여성농업인 육성의 필요성 및 관련 전담부서 설치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일본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여성농업인의 6차산업 참여 및 창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여성창업(단독 및 공동창업)에 대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 있음. 더불어 별도의 ‘여성농업(인)창업자’ 등으로 명명해 자료를 관리하고, 전담부서의 업무내용 중 여성창업 지원 업무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 일본의 경우 가족경영협정 체결 농가수가 증가 추세임(전체농가의 27%). 우리나라도 가족경영협정 체결 수 증대를 위해 농업경영체등록 시 복수의 농업인(후계자포함)이 등록되어 있는 농가, 복수의 연금 지원을 받는 농가(후계자포함)를 대상으로 가족경영협정을 우선 홍보하고 협정 체결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가족경영협약제도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 보다 여성농업인단체를 중심으로 일과 가정의 균형, 가족 내 성별 및 세대 간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홍보하고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여성농업인의 날을 지정할 경우, ‘평등부부’ 혹은 ‘평등가족’상을 마련

- 일본의 “농업 여자프로젝트”는 기업과의 다양한 연계를 통해 여성농업인들이 겪는 문제를 직접 해결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도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좋은 제도임.
 - 유니버설 디자인을 위한 농기계 및 생활 소품개발에 응용 가능할 것으로 보임.
 - 기업(및 학교)의 구내식당에 여성농업인 개발(가공)식품 구매 유도 등 기업과의 다양한 협력방안 가능
 - 기 실행했던 1社1村등의 사업을 검토하고 여성농업인을 중심으로 재규정 가능

- 일본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여성농업인 연구 및 전문연구자가 매우 희소함. 따라서 새로운 전담부서에는 여성농업인 관련 통계를 개발·관리하고, 관련 연구를 관리하는 업무가 포함되어야 할 것임.
 - 통계생산, 성인지적 정책평가 기능 확대
 - 여성농업인의 연구기획 및 관리, 여성농업인 관련 농식품부 발주 연구 확대 방안
 - 여성농업인, 행정기관, 연구자간 네트워크 강화 방안

- 일본 현단위에서 시행되고 있는 ‘농업사’, ‘지도농업사’는 여성농업인의 지역리더 육성사업 일환으로 우리도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지역봉사와 관련된 활동이 주요 임무로, 여성농업인이 지역리더로서 소명의식을 가지는데 효과를 가질 것으로 보임.

- 일본 지방정부의 경우 여성농업인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는 없었으나, 여성농업인을 대면 접촉할 수 있는 담당자를 배치하고 있음. 우리의 경우도 여성농업인이 대면관계를 맺을 수 있는 담당 인력이 필요할 것임.

- 일본 이세키(井關) 농기계회사는 농업 여자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여성농업인을 위한 농기계를 개발 및 보급하고 있었음. 우리나라도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여성농업인을 위한 농기계 개발이 필요함. 또한 관련 농기계 개발단계에서부터 여성농업인, 행정, 농기계회사의 협력 방안이 필요함.
 - 개발단계에서의 여성농업인 의견수렴 공식화를 위해 ‘여성 농작업대행단’ 추진함으로써 고령여성농업인의 농사일 부담 경감 및 일자리 창출 가능

- 고구마 주산단지에 위치한 일본 나메가타 Farmer's village는 폐교를 활용하여 고구마생산, 판매, 가공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테마파크를 운영해 참여농가의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있었음. 기존의 6차 산업의 개념에 관광, 교육, IT농업 등을 결합하여 12차 산업으로 명명하고 농업관련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었으며, 관련 일자리 창출로 고학력자가 유입하여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었음.

부록 1

여성농업인 농업노동 가치 추정모형

- 최근 5년 동안의 농가경제조사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다산출물(multi-output)을 생산하는 농가의 여성농업인 농업노동 한계생산가치를 추정하고 농촌고용임금과 상대 비교를 통해 여성농업인의 잠재임금을 도출하였음.
 - 여성 고용 농업노동은 노동시장에서 형성되는 농촌임금을 통해 그 가치를 평가할 수 있음. 그러나 무급가족 여성 농업노동은 노동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으므로 노동 수요와 공급에 의해 형성되는 임금율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가치는 잠재임금(shadow wage)의 형태로 추정되어야 함.
 - 강혜정 외.(2008)는 2005년 농가경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가족 여성 농업인 농업노동의 한계생산가치를 추정하여 여성농업인의 잠재임금을 도출한 바 있음.

1. 이용한 자료

- 이용한 자료는 2008~2012년 농가경제조사 패널자료(panel data)로, 매년 동일한 농가가 분석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5년 모두 조사된 농가만을 분석에 포함하였으며 그 결과 매년 2,115개의 농가 균형 패널자료(balanced panel data)가 이용 가능하였음.

2. 분석모형

- 여성농업인의 잠재임금 도출을 위해 다음과 같은 초월대수(translog) 투입물 거리함수를 추정함.

$$\begin{aligned}
 (1) \ln D_i(y, x) &= \alpha_0 + \sum_{m=1}^M \alpha_m \ln y_m + \sum_{n=1}^N \beta_n \ln x_n \\
 &+ \frac{1}{2} \sum_{m=1}^M \sum_{m'=1}^M \alpha_{mm'} (\ln y_m)(\ln y_{m'}) + \frac{1}{2} \sum_{n=1}^N \sum_{n'=1}^N \beta_{nn'} (\ln x_n)(\ln x_{n'}) \\
 &+ \sum_{n=1}^N \sum_{m=1}^M \gamma_{nm} (\ln x_n)(\ln y_m) + \epsilon_i
 \end{aligned}$$

단, y_1 =쌀, y_2 =쌀 이외의 작목, x_1 =토지, x_2 =고용노동시간, x_3 =남자가족노동시간, x_4 =여자가족노동시간, x_5 =자본, x_6 =기타 투입재, ϵ (= $-u+v$)은 교란항이다.

- 투입물거리함수의 투입물에 대한 1차 동차 성질에 의해 다음과 같은 동차성 조건 (7)와 대칭성 조건 (8)을 부여할 수 있음.

$$(2) \sum_{n=1}^N \beta_n = 1, \sum_{n=1}^N \beta_{nn'} = 0, \sum_{n=1}^N \gamma_{nm} = 0, n, n' = 1, \dots, N$$

$$(3) \alpha_{mm'} = \alpha_{m'm}, \beta_{nn'} = \beta_{n'n}, n, n' = 1, \dots, N, m, m' = 1, \dots, M,$$

- 투입물거리함수는 산출물에 대해서는 증가하지 않고, 투입물에 대해서는 감소하지 않아야 하는 단조성(monotonicity)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부등호 제약식을 부과할 수 있음.

$$(4) \quad \frac{\partial \ln D_i(y, x)}{\partial \ln y_m} \leq 0, \quad m = 1, \dots, M$$

$$(5) \quad \frac{\partial \ln D_i(y, x)}{\partial \ln x_n} \geq 0, \quad n = 1, \dots, N$$

○ 식 (1)의 투입물거리함수를 추정하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2) 및 (3)의 제약식과 (4) 및 (5)의 부등호 제약식도 모두 충족되도록 추정하여야 함.

○ 식 (1)에서 투입물거리함수의 로그값 $\ln D_i(y, x)$ 은 직접 관측이 되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추정방법은 교란항 ε 에 대한 가정은 Banker et al.(1991)처럼 최적화 모형이면서도 기술적 비효율성에 따른 교란항과 확률적 불확실성에 따른 교란항을 모두 감안하되 두 가지 교란항을 결합하는 최적 비율까지 선택할 수 있는 Aigner et al.(1976)의 방법을 적용함.

$$(6) \quad \varepsilon_i = \begin{cases} \varepsilon_i^* / \sqrt{1-\lambda} & \text{if } \varepsilon_i^* > 0 \\ \varepsilon_i^* / \sqrt{\lambda} & \text{if } \varepsilon_i^* \leq 0 \end{cases}$$

단, $\varepsilon_i^* \sim N(0, \sigma^2)$, $0 < \lambda < 1$

○ 따라서, ε_i 는 $\lambda=1$ 이거나 $\lambda=0$ 이면 각각 음의 절단정규분포(truncated normal distribution)와 양의 절단정규분포를 따름. 이상의 가정 하에서 σ^2 의 MLE를 대입하였을 때 로그우도함수는 다음과 같음.

$$(7) \quad \ln L(r|\beta, \varepsilon, \lambda) \propto \frac{n_1}{2} \ln \lambda + \frac{n_2}{2} \ln(1-\lambda) - \frac{N}{2} \ln \frac{1}{N} \left[\lambda \sum_{\varepsilon_i \leq 0} \varepsilon_i^2 + (1-\lambda) \sum_{\varepsilon_i > 0} \varepsilon_i^2 \right]$$

단, n_1 과 n_2 는 각각 $\varepsilon_i \leq 0$ 이고 $\varepsilon_i > 0$ 인 관측치 수

참고문헌

- 강혜정·마상진. 2007. 『여성농업인의 역할변화와 정책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강혜정. 2008. 『2008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농림수산식품부.
- 강혜정. 2008. 『농촌 다문화 후계세대 육성 방안에 관한 연구』. 농림수산식품부.
- 강혜정·이규용. 2012. “여성결혼이민자의 노동공급 결정요인 분석”. 『여성경제연구』 제9집 제2호: 49-73.
- 강혜정. 2013. “여성농업인의 노동경영 참여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여성경제연구』 제10집 제1호: 43-62.
- 김경미·최윤지·이진영·고운미. 2004. “여성농업인의 역할유형별 정책적 지원방안”. 『한국농촌지도학회지』 제11권 제2호: 359-369.
- 김경미·고운미. 2005. “여성농업인의 역할유형별 영농의사결정 참여 실태”.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제37권 제3호: 47-64.
- 김경미 외. 2006. 『여성농업인 불평등 문제와 개선방안: 토론회 결과보고서』.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개발연구소.
- 김영옥·김이선. 1999. 『21C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정책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김영옥·김이선. 2003.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농림부.
- 박민선. 2006. “여성농업인 참여 확대를 위한 농업경영모델 설정.”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자원개발연구소·공주대·농협대, 여성의 농업참여 역할 확대에 따른 지원 대책 연구(3년차) 보고서』.
- 이호철·최수영·박재홍. 2002.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교육방안”. 『농촌사회』 제12집 제1호: 37-62.
- 정기환. 1997. 『농가 여성의 노동력 구조와 경제활동 실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정은미·박대식·김우태. 2014. 『2013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허미영·박민선. 2004. “여성농업인의 경영참여 실태와 그 결정요인”. 『농촌사회』 제14집 제1호: 205-237.